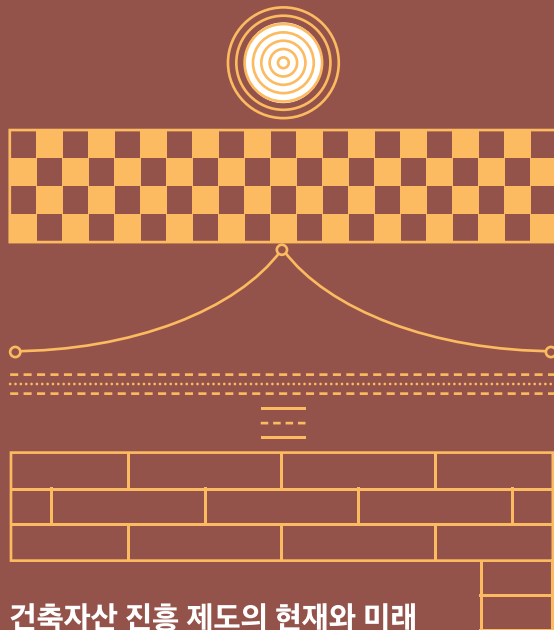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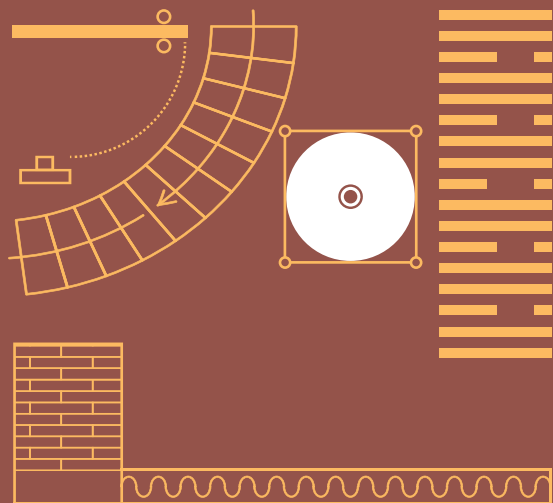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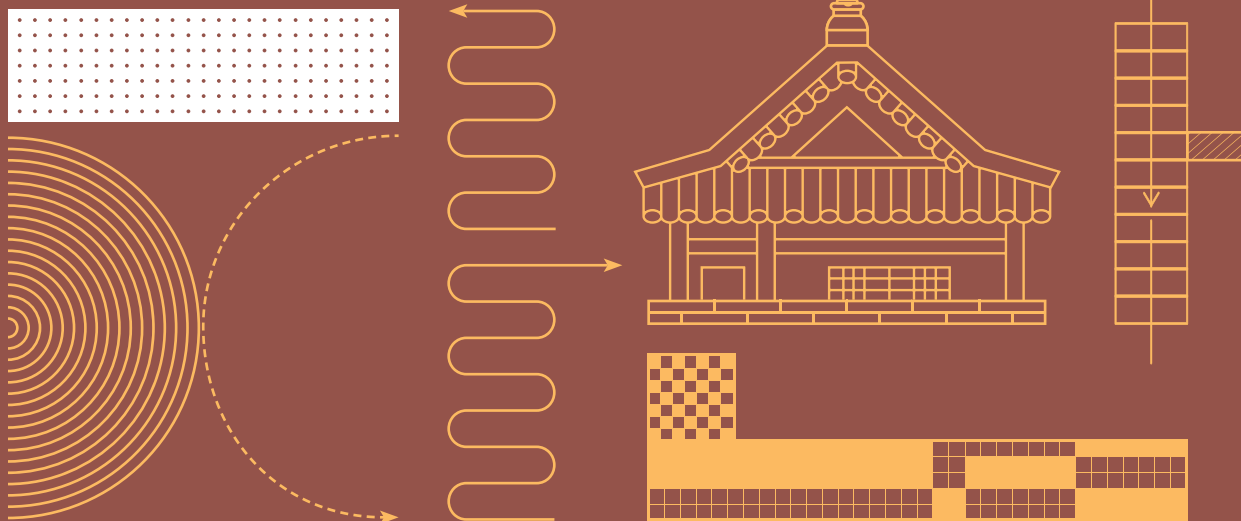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47 - Autumn 2022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auri)

건축과 도시공간

Vol.47 - Autumn 2022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47
Autumn 2022

발행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이영범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이규철

편집
이미영, 김민자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집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건축자산은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그곳 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일상 속,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쳤던 건축자산의 가치로움을 다시 발견하고
보존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 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까요?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	이규철	006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인향	016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김태일	024
건축자산 보존·활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손은신·박일향	034

통계자료실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송윤정	042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파리 오아시스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의의	유무중	048
	런던의 빅데이터 기반 주택설계 디지털 플랫폼 개발: PRISM 2.0	정기성	054
국내동향	국가승인 통계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의의와 발전방향	김은희	059
	건축물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적인 노정(路程)	김태오	064
해외단신	프랑스 파리의 '플랜테이션 파리' 옥상 농업 프로젝트 외	옥승철	068
국내단신	지역에 필요한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나선 지자체들 외		076

장소탐방

건축이 기억하는 것 -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김효영	082
땅의 울동으로 만든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	오호근	098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14
·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118
· 2022 도시와공간포럼 개최	119
·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119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	120
·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120
· 2022 공공건축 포럼 개최	121
· 2022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AURI 스페셜세션 개최	122
·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	122
·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개최	123
· 건축공간연구원-주택관리공단 MOU 체결	124
· 건축공간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124
· 2022 제3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최	125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1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정부는 두 차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5~2020, 2021~2025)을 수립하여 건축자산 진흥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법령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법령 제정 8년 후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건축자산의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대산제과 영등포공장



별동건축자산 추진을 검토 중인 옛 소리의 성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시범운영 현황



건축자산 보존·활용
지원 시스템

대한민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

대한민국
건축자산 현황·통계

건축자산
정책정보

AURI
건축문화자산센터



우수건축자산 서울 공예박물관 직물관 © 대일모

공사사항

이보기 +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의

2022 제1차 AURI 건축문화자산센터 포럼 개최

2022-07-04

2022-08-23

보도자료

이보기 +

제주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 5년을 돌아본다

2022 제1차 AURI 건축문화자산센터 포럼 개최

2022-07-11

2022-08-29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
006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016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024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034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 |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는 반면에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의 성과는 다소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처럼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 서울시는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정책사업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자산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 도시건축의 질과 삶의 질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자산 조사와 진흥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행정조직의 든든한 협력 관계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정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도화 및 구축 작업이 수행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시행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와 달리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오래되어 쇠락하거나 사라지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서 건물의 수리나 증·개축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용도의 전용을 통해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한옥이나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왔지만, 「한옥등건축자산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건축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의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라고 규정하고(「한옥등건축자산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책무를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한옥등건축자산법」 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에서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한옥등건축자산법」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건축자산 진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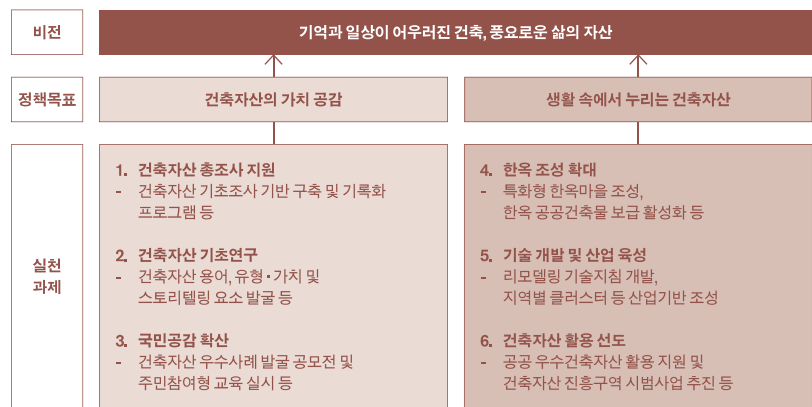
건축자산 진흥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자산 기초조사이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건축자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고(「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이를 건축자산 정보체계로 구축해야 한다(「한옥등건축자산법」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지역의 건축자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우수한 것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이 밀집하여 면(面)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한옥등건축자산법」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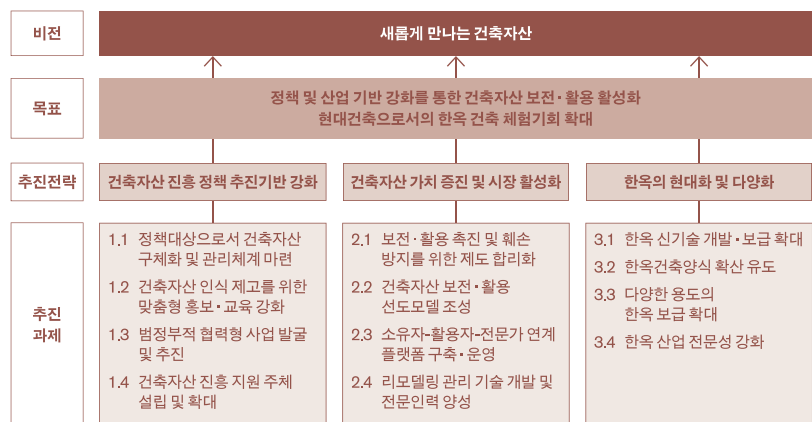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가에서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최초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건축자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일상생활에서 건축자산의 인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이 갖추어지고 지자체에서 건축자산을 활용한 몇몇 사업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통계 구축과 범정부 협력체계 등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축자산 소유주의 정책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에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범정부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었다. 또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도모델 조성사업, 건축자산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장 여건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2015, p.1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2020, p.36)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광역지자체는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2개 시·도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5개 시·도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2023년까지 발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에 2차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서울·세종·대전·제주 등 4개 시·도에서도 2차 시행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건축자산 조례 제정 현황(2022. 8. 기준)

광역지자체	1차 시행계획	2차 시행계획	조례 제정 (최종개정)	비고
서울	● (2019)	-	2016.3.24, (2021.5.20.)	2023년 2차 용역 발주 예정
부산	○ (2023 예정)	-	2016.7.13, (2021.8.11.)	2021년 1차 용역 발주
대구	○ (2023 예정)	-	2019.12.24,	2022년 1차 용역 발주
인천	● (2019)	-	2015.11.16, (2020.12.31.)	-
대전	● (2019)	-	2016.4.12, (2021.6.30.)	2023년 2차 용역 발주 예정
광주	○ (2023 예정)	-	2017.11.1, (2020.12.28.)	2021년 1차 용역 발주
울산	-	-	-	2023년 1차 용역 발주 예정
경기	● (2018)	○	2016.1.4, (2021.1.8.)	2022년 2차 용역 발주
강원	● (2019)	-	2017.11.3, (2022.6.30.)	-
충북	● (2020)	-	2017.11.10,	-
충남	● (2019)	-	2017.4.20,	-
전북	○ (2022 예정)	-	2016.12.30, (2020.5.29.)	2021년 1차 용역 발주
전남	● (2019)	-	2016.12.22, (2021.4.8.)	-
경북	● (2021)	-	2015.12.31,	-
경남	● (2022)	-	2019.3.28, (2021.8.5.)	-
제주	● (2019)	-	2017.3.8, (2020.5.13.)	2023년 2차 용역 발주 예정
세종	● (2018)	-	2016.10.31, (2021.7.15.)	2022년 2차 용역 발주 예정

●: 수립 완료, ○: 수립 중

출처: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 자료.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는 지역의 건축자산 현황, 건축자산 관리 체계, 건축자산 활용사업, 건축자산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시민공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담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특례를 구체화하는 건축자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조례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건축자산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제도 운영 현황

건축자산 기초조사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건축자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법률에서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조사가 건축자산 진흥 제도 운영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기초조사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사항은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17개 광역지자체는 여러 방법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전체 지역을 연차별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제주가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세종은 예산 문제로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듬해에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몇몇 지자체는 아직 전체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일부 지역만을 조사하거나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사업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경우가 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현황(2022. 8. 기준)

광역지자체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	연차별 기초조사	시행계획 수립 이후 기초조사	일부 지역 기초조사	
				진흥구역	AURI 지원
서울	●	●			
부산	○				
대구	○			●	
인천	●				
대전	●				
광주	○				
울산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세종	-		●		

●: 시행 완료, ○: 시행 중

출처: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 자료.

우수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은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건축자산이다.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을 결정한다. 우수건축자산은 법률에 근거하여 조세 감면, 기술 및 재정 지원과 함께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지만, 지원이나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행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는 보전·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제도와는 차별된다.

2022년 8월 기준 우수건축자산은 총 1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2개가 서울에 위치하여 우수건축자산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

우수건축자산 현황(2022. 8. 기준)

구분	명칭	소유자	등록연도	비고
경기	공간환경	매항리 쿠니사격장	화성시	2016
서울	건축물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서울시	2017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대선제분(주)	2019
		캠벨선교사 주택	서울시	2019
		북촌한옥청	서울시	2020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서울시	2020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선린인터넷고등학교	2020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경복고등학교	2020
		공공일호	(주)공공그라운드	2020
	공간환경	김중업 설계 사직동 주택	서울도시주택공사	2022
	기반시설	돈화문로	서울시	2020
		사직터널	서울시	2020
		명동 지하상가	서울시	2020

출처: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 자료.

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선제분 영등포공장’과 ‘공공일호(구 샘터 사옥)’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우수건축자산은 공공소유로,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등록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현재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우수건축자산으로는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이 있다.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과 「건축법」의 대지의 조경, 건축선, 건축설비기준 그리고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완화를 받아 우수건축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묶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크게 ‘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운영’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계획의 수립주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이며, 도시·건축 공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2022. 8. 기준)

지역	구역	구역 지정	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서울	종로구	북촌	●	●	●
		돈화문로	●	●	●
		익선	●	●	●
		인사동	●	●	●
		운현궁 주변	●	●	●
		경복궁 서측	●	●	●
		조계사 주변	●	●	●
	성북구	선잠단지	●	●	○
		앵두마을	●	●	○
대구	중구	향촌동	●	●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	동구	이사동	●	●	●
인천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	○	○	○
		중구	○	○	○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	○	-	-
		인천내항 지역	○	-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일대	●	○	○
	익산시	인화동	○	○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남	나주시	나주 읍성권	●	●	●

●: 진행 완료, ○: 진행 중

출처: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 자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이 확정된다.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도시조직과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해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관계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도 권장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모두 13곳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대해 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온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구역의 지정 지구단

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그리고 대구 중구 향촌동은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이후,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건축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경우에는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에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전 동구 이사동과 전남 나주시는 민속마을 및 한옥마을에 해당하는 곳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편 전북 군산시는 진흥구역 지정을 일찍이 완료하고 관리계획안도 마련하였으나, 실행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고시를 보류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개선 방향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로서 지역의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우수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으로 건축자산이 관리되고 있다.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는 반면에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의 성과는 다소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처럼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건축자산의 효과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정책 대상으로서 건축자산을 구체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건축자산의 DB를 관리하고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조사 시행이나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에서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건축자산 진흥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건축자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도 행정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만으로는 건축자산의 개념 및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자산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여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건축자산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법에 규정된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 합리화이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해 보전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건축자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조세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 운영에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가 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구성·운영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여러 시·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등 건축자산 제도를 적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사업은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15).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 2 국토교통부. (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 3 염철호 외. (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4 이규철, 진태승.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5 박일향, 손은신, 이규철. (2022).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auri brief, No.247. 건축공간연구원.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인향
서울시 한옥정책과 주무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정책

서울시는 2,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2000년대부터 도시정체성을 보여주는 도시공간, 도시경관 요소인 역사문화환경의 가치 활용이 도시 건축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어 근현대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 사업,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한옥등록제(2001~), 미래유산(2013~), 역사도심관리계획과 중점관리대상건축물, 생활유산목록화(2015~)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청계천 일대 조성 등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자산화와 도시활성화정책을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5년 6월 국가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최초로 시행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중 장기 계획인 ‘제1차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2019년 8월 1일 공고했다. 수립과정에서 세미나, 전문가 의견 수렴, 공감회의 등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서울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건축자산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된 점,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대상이 확대된 점, 조사·보호·활용 체계와 제도 기반이 마련된 점에 의의가 크다.

건축자산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및 기록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시민공모,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브랜드 개발(미래를 위한 시선 등), 오픈하우스를 포함한 전시체험 등을 연계하여 활발히 추진해 왔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기록화

등록 현황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은 12개소다. 2017년 3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 중인 체부동 성결교회가 제1호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로 공공 소유 9개소, 민간 소유 3개소가 각각 등록되었다.

우수건축자산 현황(2022. 8. 기준)

구분	2017년(1개소)	2019년(2개소)	2020년~(9개소)
등록	2017. 3.	2019. 5.	2020. 1. / 2022. 3.
대상	체부동 성결교회	대선제분, 캠벨 선교사주택	한옥청, 공공일호 외
위치	종로구 체부동 187 외 1	영등포구 문래동3가 9 / 종로구 사직동 311-32 외	종로구 8, 용산구 1
가치	지역경관 형성, 벽돌쌓기 등 건축사적 가치	산업건축물, 선교사주택의 의장 완성도 (역사적·경관적·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	석재건축 등 의장적 완성도 (역사적·경관적·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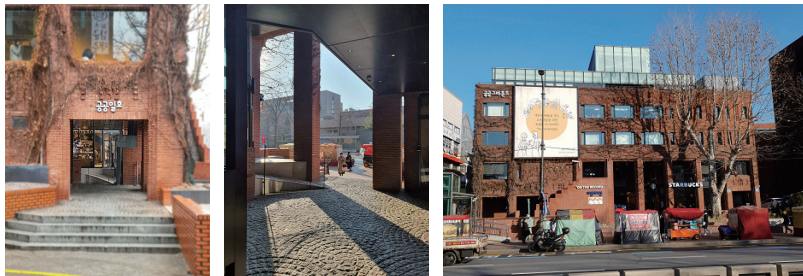
제1호 체부동 성결교회(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3-2)는 1931년 건축되어 프랑스식과 영국식 두 가지 벽돌쌓기 방식 등 건축양식의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2017. 3.)되었고, 건폐율과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았다. 리모델링 후 현재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로 생활음악 동아리를 위한 거점공간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권형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제11호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제12호 김중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 등 우수건축자산 3개소는 민간 및 공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례이다.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인화



공공일호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9)은 1936년부터 근대 산업건축물의 건축적 특성(형태, 구조, 재료)을 잘 보존하고 있어 산업유산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에서 재생 사업과 연계한 민간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 협의와 서울시 건축자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2019. 5.)되었다.

제11호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는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적 건물 중 하나로 1979년 완공되었으며, 대학로 일대 붉은 벽돌 건물의 효시다. 2012년 승효상 건축가에 의해 4층, 옥상부에 유리화 철골조로 수직 증축 설계되었으나 건축 당시 형태, 구조, 공간 구성이 잘 유지되어 왔다. 2017년 (주)공공그라운드가 매입해 공유공간, 파랑새 소극장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소유주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2020. 1.)되었다.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 특히 1층부 개방 공간의 공공성 가치가 매우 크다.

제12호 김종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62-15)은 2021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빈집사업으로 매입,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거 전 2021년 10월 집수리 지원사업 전시 ‘걱정말아요, 집수리’로 오픈하우스가 진행되면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었고, 이를 허물지 않고 가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수건축자산으로 신청 등록했다. 1983년 치과의사 박시우 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직동 주택(대지면적 838.3㎡, 건축연면적 292.5㎡)은 근대 건축의 거장인 김종업 건축가의 설계로 건축된 지상 2층, 지하 1층의 조적조 건물이며 지금도 구조 및 재료 등 초기 형태가 온전히 잘 남아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주택의 외관과 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 구릉지 저층 경관과의 조화

©안인형



김중엽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

와 자연을 끌어들이는 ‘경관적 가치’,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적 가치’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관리 및 지원, 기록화

우수건축자산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되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며 건축주, 행정관리청(시·구 허가 및 사업부서)에서 등록증과 등록대장을 각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최대 1억 원), 건축특례 적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유산,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생활유산 등 다른 유사 제도와 차별화된다. 지원금은 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 다각형을 활용한 평면, 원형 창과 아치의 활용, 나선형 계단, 온실 공간 등 주택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은 김중엽 설계의 특징이며, 주택 마감재료의 디테일과 주택 조경도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수건축자산 기록화 책자

그리고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공유와 기록화 지원을 목적으로 우수건축 자산 기록화 소책자 작업을 진행 중이며 7개소가 진행, 4개소가 이미 배포 및 활용(웹용 등)되었다. 여기에는 현재 건축자산이 변화해 온 과정, 참여 건축가와 전문가, 관리운영자들의 이야기, 향후 개발 압력이 있는 경우 남겨야 할 주요 가치 부분 등 건축자산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기록화 책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자 하는 소유자 및 활용주체, 설계 및 시공 분야 실무자, 관계 공무원에게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건축주를 포함한 서울시민에게는 가치 공유와 제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기획·제작되었다. 책자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서울시는 2020년 12월 한옥밀집지역 9개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종로구 7개 지역(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 서측)과 성북구 2개 지역(선잠단지, 앵두마을)으로 총 9개 구역을 지정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지역 내 건축자산 심층조사 및 목록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2022. 8. 기준)

현황	종로구(7)							성북구(2)	
	북촌	익선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앵두마을	선잠단지
면적(m ²)	1,128,372	31,121,50	124,068	147,860	582,297	147,809	66,698	31,245	5,868
건축자산	61	1	17	14	18	9	11	2	2

* 구역지정 고시: 2020. 12. 24.(서울시 고시 제2020-586호)

* 관리계획 수립 공고: 2020. 12. 24.(서울시 공고 제2020-3502호/제2021-107호)

한옥밀집지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계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근거 법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02.5.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4.6.3.	
정의	한옥밀집지역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옥보전구역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 지정, 유도,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 등록한옥 유효기간 동안 한옥 철거·멸실 제한 지원금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 유지 한옥 소유자가 등록한 한옥	관계 설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우수건축자산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심의를 거쳐 등록된 건축자산	
관리계획	자체 관리수단 없음, 지구단위계획 병행	관리계획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병행 가능)	
보조 및 응차지원	한옥	지원가능대상 자산범위 확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한옥마을 조성	
특례 적용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특례 적용 가능	특례 확대 적용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특례 적용 가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침 및 특례계획, 공공지원사업을 담고 있으며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건축특례를 주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과 연동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도래하지 않은 종로구 5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경복궁 서측, 익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지침을 따르도록 일괄고시(2021.4.1.)하였다. 그 외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단계인 북촌, 조계사, 앵두마을과 선잠단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였다.

운영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효율적인 행정적 관리를 위해 기 지정된 도시관리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역계에 맞추고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관리된다. 허가나 건축특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로 협의하여 건축자산의 가치를 살려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건축자산 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기초조사에 기반

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지침, 특례 적용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관리방향은 ▲한옥은 양질의 한옥 유도 ▲한옥 지원 시 조례상 한옥수선기준 준용 ▲한옥특례적용 기준 확대 그리고 ▲한옥에 국한된 자산범위를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확대하여 건축자산의 보전 및 창조적 활용유도를 위한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인허가권자가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자치구 건축위원회자문을 받거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특례 및 비용지원 내용(2022. 8. 기준)

구분	비용 지원		특례				기타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민법」		
우수 건축 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 보조금: 6,000만 원 · 융자금: 4,000만 원 ※ 융자조건: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은행수수료 : 대출잔액의 연 0.8%)	· 지역지구의 건축제한 · 건폐율 · 용적률	· 대지의 조경 · 공개공지 · 대지와 도로 관계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 건축제한 · 피난시설 · 내화구조 · 고층건축물 피난	· 부설 주차장 설치	×	· 기술 지원 (기술 자문, 자료 제공, 홍보,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 매입 · (조세 감면- 현제 미반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외		· 건폐율	· 방화지구 · 마감재료 · 지하층 · 대지 안의 공지 · 맞벽건축 ·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 · 건축설비기준 · 승강기				
(비한옥) 건축 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	· 지역지구의 건축제한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 건축제한 · 대지 안의 공지 · 맞벽건축 · 높이제한	· 부설 주차장 설치	×	· 도로 등 기반시설 공공사업 · 소규모 수선 지원 ·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 공공 매입	
	건축자산 진흥구역 외	×	×	×	×	×		

나가며

서울시는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정책사업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자산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가치 공감과 인식 확산’이다. 건축자산 정책과 계획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건축자산을 ‘동결 보존식 문화재’로 인식해 부정적이고 경직된 접근을 하고 있어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은 사례들이 많지 않으며 관련 진흥법 체계상 적극적인 유지관리의 한계점과 법령 해석상의 혼란도 있어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서울시는 건축자산 세미나, 심포지엄, 서울건축자산 정책브랜드 개발, 기록화 책자,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고 알리는 시간을 기획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자산소유자·사용자·전문가 등과 함께 건축자산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치공감 형성을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는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 전문가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축자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울건축자산 정책브랜드



시민 공모전(2021)



정책 심포지엄(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들어가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자산으로서 인식하고 보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수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인식 변화와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어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공간의 역사성·문화성·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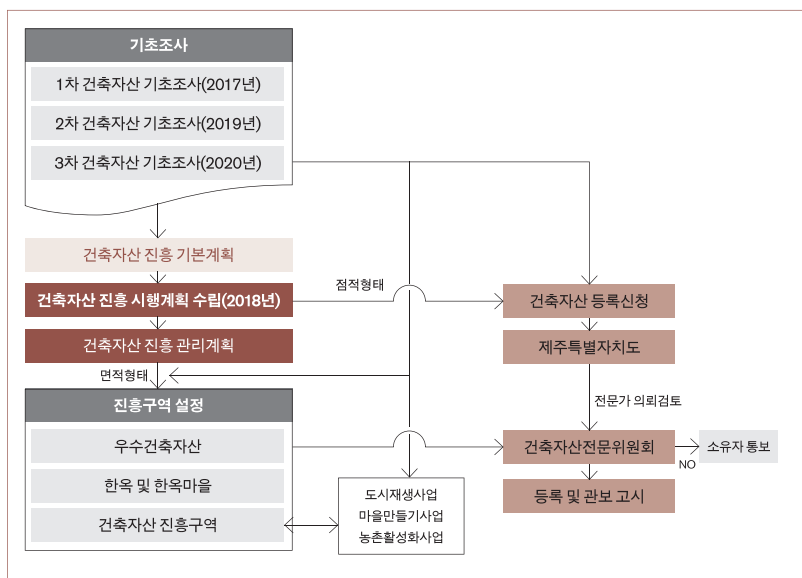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자산의 보전과 조성, 활용을 통해 주민 및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일상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유의 환경이 연계되는 ‘지역성’에 건축자산 진흥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2022년 현재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과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진흥구역 지정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조사와 시행계획 그리고 후속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현황

연차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선행되어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이들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과 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통해 우수건축자산 후보 파악이 2020년 마무리되었다. 또한 2019년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위원회 아래에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우수건축자산 후보의 등록뿐만 아니라 진흥구역 설정과 지원대상의 심의 등 중요한 역할을 폭넓게 수행한다.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이유여기에 있다. 이 외에 2021년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 조사용역도 완료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사단계의 과정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근거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진흥구역 설정 등 세부 사업을 검토 중이다.



연차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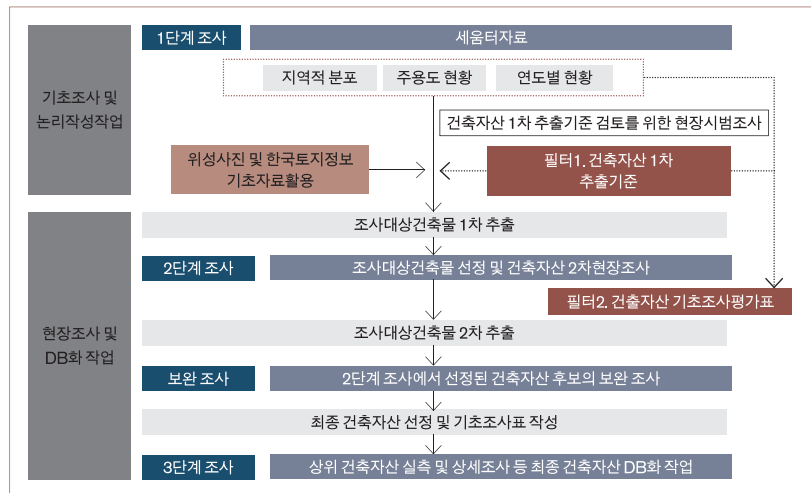
출처: 건축공간연구원(2020, p.16)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

우수건축자산 후보 건축물을 추출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때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단계별로 건축물 추출과정의 객관성과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작성된 필터를 사용하는 등 추출의 합리적 과정을 마련한 것이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속 기초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3~4곳의 현장시범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1차 추출기준(필터1)을 마련하여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초조사 평가표(필터2)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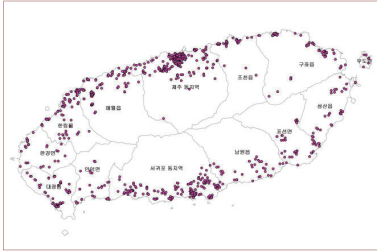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3차에 걸쳐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벌여 건축물을 비롯해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수건축자산 후보 건축물을 1,114건, 우수건축자산 후보 공간환경을 84건 선정하였다. 공간환경에는 마을 내 돌담의 올레, 오래된 풍낭으로 구성된 생활공간이 포함되는 등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우수건축자산 후보 기반시설 524건이 선정되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도서 지역의 특성상 마을 내 포구와 용천수 등 생활 중심의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수건축자산 후보의 추출 과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0,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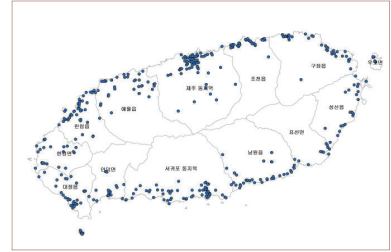
© 건태일



우수건축자산 후보 건축물(1,114건)



우수건축자산 후보 공간환경(84건)



우수건축자산 후보 기반시설(524건)

그러나 건축자산의 인식 문제와 함께 시간과 예산 문제로 민간 영역까지 건축자산 등록의 폭을 확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 영역의 우수건축자산 후보 중 서귀포시 관광진흥과가 관리하는 옛 소라의 성* 등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제주사랑방과 테쉬폰(문화재 미지정 대상)을 선별하여 건축자산 등록을 검토 중이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과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에서는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와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에서 각각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건축자산 기본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석 및 판단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사이다. 아울러 조사내



등록건축자산 추진을 검토 중인 옛 소라의 성

* 설계자 미상이지만 건축가 김중업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 건태일

용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국토이용 측면에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예비문화재로서의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선행적으로 2018년 시행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었다. 시행계획의 비전을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의 실현’에 두고 ①건축자산 발굴 및 관리 ②건축자산 활용 및 참여 ③가치공감 및 확산이라는 3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15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2023년이면 시행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시행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목표와 실천과제

목표	실천과제	세부실행계획	현황
1. 건축자산 발굴 및 관리	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사업	가. 연차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제주형 한옥 밀집지역 지정	후보지 검토 완료/ 추진 중
	2) 건축자산 등록,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	가.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나. 우수건축자산 등록 사업 및 홍보	추진 중
	3) 건축자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 건축자산 지원 조직 및 센터 설립	
		나. 건축자산 특별회계의 설치	
2. 건축자산 활용 및 참여	4) 공공성과 문화가치 확산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자산 활용(H/W)방안 마련	가. 주민공공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나. 우수건축자산 및 제주형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지원 사업	
	5) 기 추진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보전, 조성, 활용 확산	가. 기 추진사업(도시재생 지역, 마을만들기) 지역 내 건축자산 활용 공모사업	
		나. 건축자산 연계형 지역특화 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협업	
	6) 지역 단위 건축행사 연계	가. 건축자산 소개 및 탐방 프로그램 지원	
3. 가치 공감 및 확산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둔 유지·관리 산업 및 인재 육성방안 마련	가. 건축자산 전문가 육성사업	
		나. 건축자산 빈집 활용방안 구축	
	8) 주민주도에 의한 주민 참여 지원 및 활성화	가. 주민주도형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나. 마을 역사, 인물사 연계 건축자산 콘텐츠 조사 지원사업	

15개 세부과제 중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는 4개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첫째, 공공시설의 건축자산 등록 이후 관리방안의 제도적 미흡이다. 현재 건축자산 등록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부서가 다를 경우 건축자산 등록 이후 연계 혹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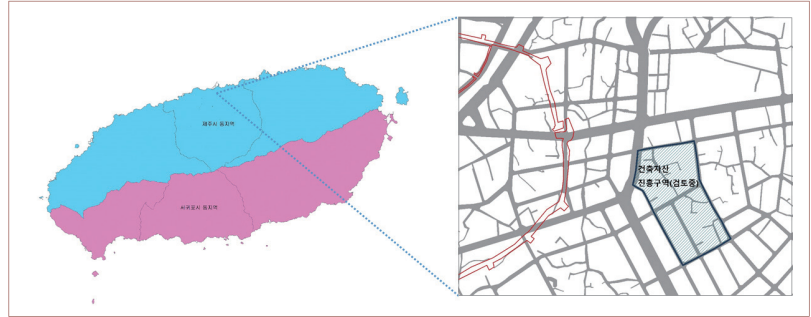
둘째, 민간 부문의 우수건축자산 후보의 등록 유도 및 DB의 개방 어려움이다. 우수건축자산 후보의 대부분은 민간 소유 건축물이어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등록절차상 도면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건축자산지원센터 설립으로 민간 영역을 지원할 수 있겠으나 센터 설립은 조직 구성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DB화해도 법정관리 데이터가 아니어서 홍보에 필요한 공개 및 고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민간 영역 지원과 DB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담인력과 조직의 한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자산관리업무는 건축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팀장과 주무관 2명이 전담하고 있다.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건축자산 업무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고 지원 없이 도 예산만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국고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에 위치한 동문 밖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주요 가치를 조사하여 보전·활용·관리하기 위한 진흥구역의 범위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문 밖 주변 일대는 상대적으로 성내보다는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지역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점진적으로 주거지를 형성하며 발전해 온 생활공간이다. 또한 동문이라는 제주읍성의 상징적인 문이 위치하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1950년에서 1970년대에 걸쳐 형성된 주거의 근대 풍경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근대 풍경과 일상



건축자산 진흥구역 검토지역

생활 공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실행계획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원칙 1 | 지역경관 관리**
진흥구역 관리계획 목적에 맞도록 훼손 방지 및 유지를 통해 지역경관 중심으로 관리한다.
- **원칙 2 | 자산의 원형성 유지**
세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대문, 지붕, 벽체, 창호, 돌담을 개별 건축자산의 원형성에 맞게 유지한다.
- **원칙 3 | 스케일 유지**
진흥구역 및 주변의 스케일(규모)을 유지하여 경관을 압도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한다.
- **원칙 4 | 보행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성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원칙 5 | 공동체 및 정체성 지속**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원칙 6 |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원칙적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후속사업과 과제

후속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추진 중인 후속사업은 ①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우수건축자산 및 제주형 한옥 개·보수 및 신축지원 사업 ③우수 건축자산 등록 사업 및 홍보 ④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이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자료와 진흥지구 지정에 대

한 자료 수집 및 분류를 통해 건축자산 데이터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②우수건축자산 및 제주형 한옥 개·보수 및 신축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동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한식 목구조로서 축담이 현무암 등으로 축조되고 전통적 공간구성의 형식을 갖는 건축과 그 부속시설로 정의된 제주형 한옥 개보수 및 신축공사를 지원한다. 또한 제주 건축문화의 특성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③우수건축자산 등록 사업 및 홍보’도 이뤄지는데, 소멸성 높은 우수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보전을 위한 자산 등록과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건축자산 제도의 홍보와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 중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우선 선정하여 건축자산의 활용 및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그리고 민간 소유 우수건축자산 후보의 경우 소유주 및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유지·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실시된 기초조사와 시행계획의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1월 초 기초조사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여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과 진흥구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 성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제주국제건축포럼의 공식 주제로 전시와 토론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④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2021년 완료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용역을 토대로 진흥구역 경계 설정의 구체성을 검토하고, 구역 내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과제

먼저 추진협의체 활성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경험 축적의 미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자산 기초조사 진행 현황, 사업 추진 내용 및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착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간 차별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건축자산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일정 부분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추진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할부서가 서로 다른 우수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상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은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건축자산과 관련된 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관할부서도 다르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선정하거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도 처음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던 건축 관련 부서(제주도의 경우 건축지적과)에서 이들 건축자산을 등록 및 관리·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부서 간 행정 영역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한옥등건축자산법」 등에서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여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건축자산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 활용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건축가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가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현상설계뿐만 아니라 공공성 지도 제작을 통한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등 도시와 건축의 폭넓은 공공성 영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참여한 건축사들의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필요에 따라 해당 건축자들을 건축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축 DB의 활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시민 가치를 공유하는 일도 하나의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년간에 걸쳐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들 결과물은 DB 구축 형식으로 완료되었으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농어촌 뉴딜사업 등의 관련 부서나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서 간 협의 의무화 제도를 명문화하고, 구축 DB를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시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시대적 정신이 담긴 수많은 건축물도 개발의 논리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대에 새삼 건축에 주목하는 것은 압축성장 과정 이후 급속하게 변화해 버린 우리 삶의 환경과 도시, 건축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고 있다.

도시건축의 질과 삶의 질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자산 조사와 진흥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5년을 단위로 추진되는 시행계획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문화예술 관련 부서 등과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부서 간의 협력이나 연계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행정조직의 든든한 협력 관계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정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김태일. (202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성과와 후속사업. 제2차 대한건축학회-건축공간연구원 학술 심포지엄 '건축자산 용어 사용과 개념, 지역의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 자료집.
- 2 김태일. (2021). 제주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안 수립. 제4회 건축공간연구원-근대도시건축연구회 공동 학술 세미나 '지역 건축자산의 제도적 활용 방안' 자료집.
- 3 김태일. (202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활용과 등록추진 현황. 2022년 제1회 AURI-광역시자재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자료집.
- 4 건축공간연구원. (2020).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한림읍 일대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 구축.
- 5 건축문화자산센터, 서울소셜스탠다드, 바래,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2021). 건축자산 가치조사 - 2021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남원·수원·제주). 건축공간연구원.
- 6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보고서.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일향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보체계의 개념과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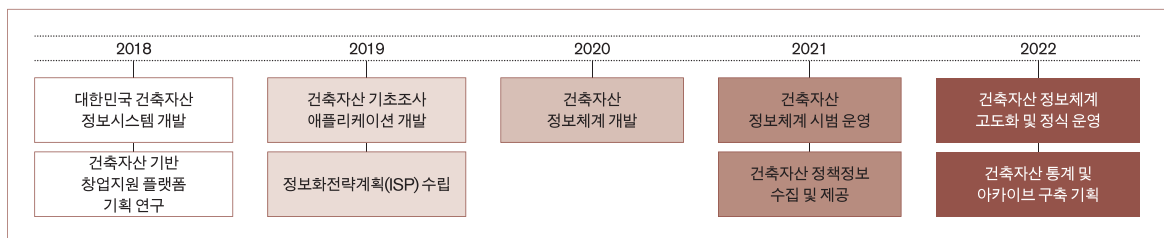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기초조사 그리고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건축자산 정보체계란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한옥등건축자산법」 제7조 제1항)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를 의미한다. 건축자산의 기본현황 자료,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조사·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시각 자료,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은 법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의무이지만, 지자체마다 이를 위한 기술·예산·인력·전문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표준화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체계인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연차별로 추진된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개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2015년에 지자체별로 건축자산 기초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고 건축상 수상작품의 정보를 아카이빙하는 ‘지자체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시스템의 활용방법을 담은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울시·경기도·전라남도(목포·영암)를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여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건축공간연구원 내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설치와 함께 본격적인 시스템 기획과 고도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확장하여 건축자산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9년부터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활용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진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지자체가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부터는 그간 기획·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건축자산 관련 정보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현재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구성되는데, 이용 대상과 내용에 따라 ▲건축자산 정보 입력 시스템 ▲건축자산 정보제공 서비스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연차별 건축자산 정보체계 개발 추진사항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시범운영 현황(2022.8.)

출처: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aac.auri.re.kr>

있다. 2021년 말 지자체 건축자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올해 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건축자산 정보체계 내 정보서비스 소개

건축자산 정보 입력 시스템(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건축자산 정보입력 시스템은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http://heritage.aurum.re.kr>)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지자체마다 각 지역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은 건축자산 정보체계 내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건축자산 정보체계 내 정보서비스 유형별 메뉴 구성 현황

대한민국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관리자 | 계정관리 | 로그인

건축자산 기초조사 | 우수건축자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물 > 수정/삭제

* 인증 (0 : 입력중, 1 : 입력확인)

Record: 6428

영역: Search

광역시/자치: 구/군: 수상여부: 가처구분:

주용도(건축물): 종류(공간환경): 용도(기반시설):

목록: 기본: 상층: 인증:

백업다운로드

아이콘 (X : 미입력, Δ : 일부입력 O : 모두입력)

번호	사진	명칭	지역	용도 (종류)	수상	목록/기분/상층	입력 (담당자)	인증
14448		송림동 55-4 상가건물(구)현대극장	인천 동구		X	Δ / Δ / Δ	인천광역시 (한성준)	0
14455		전북 남원시 동중동 197-15(조사대상주거)	전북 남원시	기타	X	O / O / O	전라북도	0
14456		전북 남원시 동중동 197-14(조사대상주거)	전북 남원시	단독주택	X	O / O / X	전라북도	0
14461		전북 남원시 동중동 209-6 COPY	전북 남원시	숙박시설	X	O / O / Δ	전라북도	0
14462		전북 남원시 동중동 209-6 COPY	전북 남원시	숙박시설	X	O / O / Δ	전라북도	0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범운영 현황(2022.8.)

출처: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aac.auri.re.kr>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건축자산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내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초조사 데이터 입력을 지원하며 전국의 건축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대전 등 6개 특·광역시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세종 등 8개 시·도가 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력된 기초조사 데이터는 건축물 8,428건, 공간환경 382건, 기반시설 241건으로 총 9,051건으로 집계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는 본 정보시스템의 관리 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aac@auri.re.kr)에 문의하여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2019년 간행된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매뉴얼>을 활용하면 수월하다. 애플리케이션 매뉴얼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와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매뉴얼>(좌)과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정보 입력 수정 화면(우)

출처: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aac.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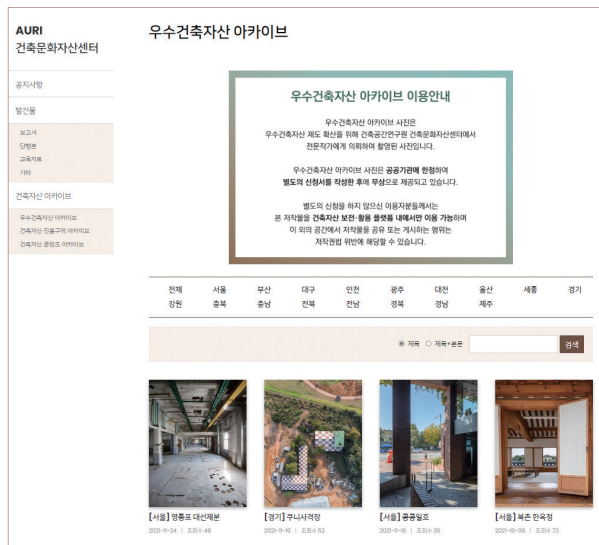
건축자산 정보제공 서비스

건축자산 정보체계에서는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건축자산과 관련된 정책정보, 건축자산 현황 및 통계자료,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아카이브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축자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건축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책정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축자산 관련 법령 및 조례 ▲국가 기본계획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자산 관련 보도자료 또한 폭넓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건축자산 현황·통계에서는 시·도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우수건축자산 13개소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13개 구역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건축자산 기초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자산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올해 말 정식 운영 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자산 정보체계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생산한 다양한 건축자산 유관정보와 연구자료, 아카이브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자산을 주제로 한 연구자료 및 단행본과 교육자료 외에



우수건축자산 아카이브 사진 이용화면
출처: 건축자산 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aac.auri.re.kr>

심포지엄·세미나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자산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그리고 기타 건축자산 관련 콘텐츠를 아카이빙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우수건축자산 13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전문작가가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우수건축자산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업로드된 아카이브 사진은 공공기관의 경우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은 현재 기획 단계로, 건축자산 소유주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기획가·설계가·수리업자 등 전문가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상되었다. 최근 민간 기업의 주도로 배달 서비스, 부동산 매매, 호텔 예약, 중고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건축자산에 적용하여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소유주 간 매칭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일까? 건축자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건축자산 소유주들은 건축자산을 활용해 창업공간을 마련할 때 시공단계와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에서 어려움을 체감하였으며, 특히 시공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68.0%)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축자산 소유주들은 공간 기획 및 구상 단계(46.0%), 설계단계(48.0%),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70.0%)에서 모두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을 통하여 건축 설계·시공·공간기획·관리·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원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올해 말 정식 운영될 예정이며,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서비스 구축 확대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세 가지 각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방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첫 번째로, 건축자산 데이터를 입력·관리하는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에서는 지도에 기반한 면(面) 단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대장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 오픈 API를 통해 제공되는 관련 정보를 연동하는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지도서비스에 기반한 면 단위 관리계획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 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하도록 하며, 건축물 이외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 등 여러 건축자산 유형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로, 건축자산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통계 및 정보, 아카이브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으나, 건축자산은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속한다. 누구나 쉽게 건축자산에 대하여 이해하고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대한 다양한 실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획 단계에 있는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플랫폼의 실현을 위하여 사전 시범사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 이하 설문조사 내용은 이민경 외(2019)를 참고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1개소를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초 전략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범사례 운영을 통해 추후 전국의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플랫폼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플랫폼 시범운영을 통하여 ‘지자체의 건축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지원하고 매칭하여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그리고 건축자산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도화 및 구축 작업이 수행될 계획이다.

새롭게 만나게 될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통하여 지자체는 건축자산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건축자산을 발굴하며, 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아울러 건축자산과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를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하며,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시 전문가와 소유자가 자유롭게 만나는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2016).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 건축공간연구원.
- 2 건축문화자산센터. (2018).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3 건축문화자산센터. (2020).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내부자료.
- 4 건축문화자산센터. (2020).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매뉴얼. 건축공간연구원.
- 5 건축문화자산센터. (2022).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내부자료.
- 6 건축자산 정보체계 시범운영 홈페이지. <http://aac.auri.re.kr>
- 7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heritage.aurum.re.kr>
- 8 손은신. (2022).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의 현황과 과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9 이민경, 이종민, 김미현, 김민지. (2019). 건축자산 기반 창업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auri brief, No.191. 건축공간연구원.
- 10 조영진, 윤호선. (2017).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건축과 도시공간.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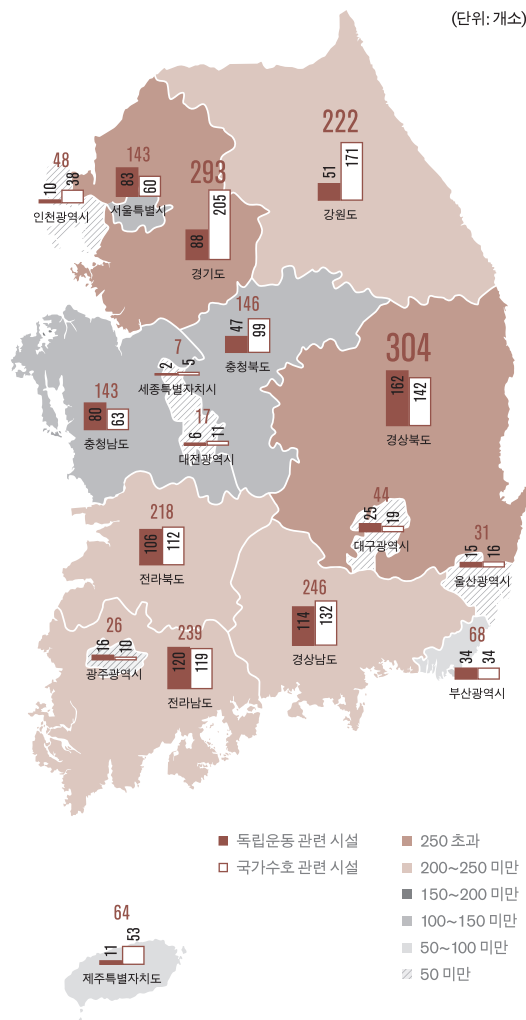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❶ 전국에 현충시설은 얼마나 지정되어 있을까?

(단위: 개소)

A 총 2,25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2년 1월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및 건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기준 국내 현충시설은 총 2,259개소, 국외 현충시설은 1,386개소가 지정되었다. 주제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되며 국내에 지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총 970개소, 국가수호 관련 시설은 총 1,289개소로 집계되었다. 형태에 따라 비석·탑·동상·조형물·기념관·사당·생가·공원은 장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현충시설은 비석 및 탑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생가 및 공원은 전국적으로 50개소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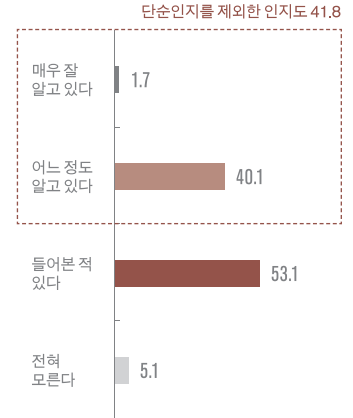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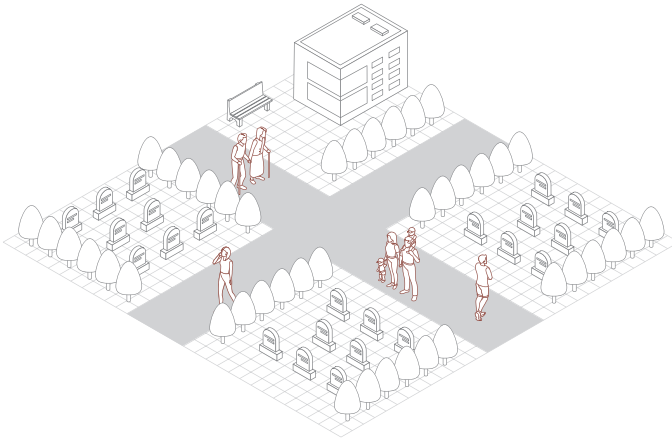


* 현충시설(顯忠施設)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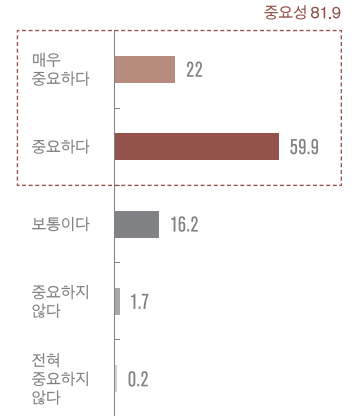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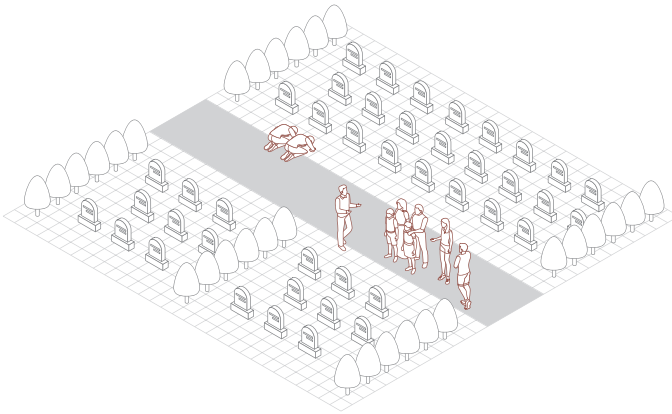
❶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단위: %)

인지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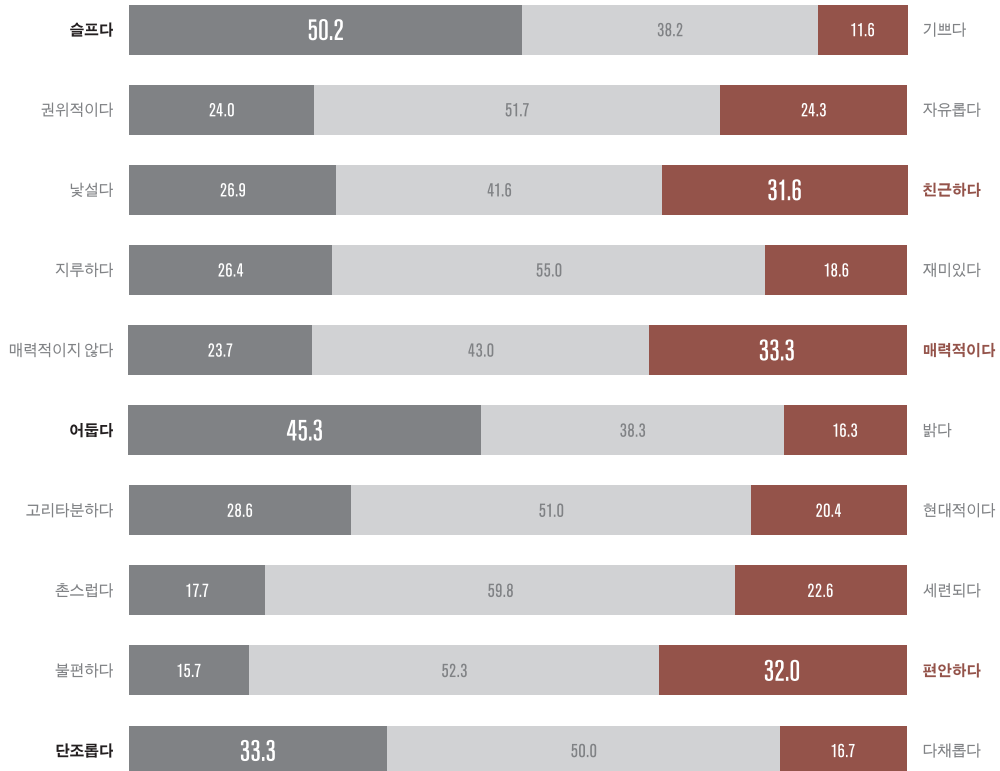
㉠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단순 인지를 제외한 인지도는 41.8%

평소 현충시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 '들어본 적 있다'로 응답하여 현충시설에 대한 단순 인지도가 높았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81.9%로 높게 나타났다. 현충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현충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단위: %)

■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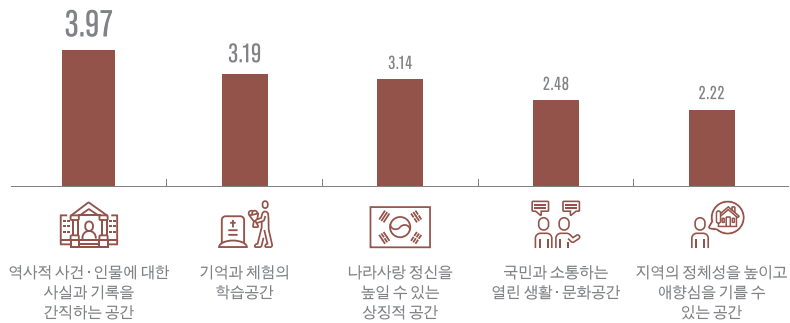


A '슬픈', '어두운', '단조로운' 이미지가 강하며, 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

국민들은 현충시설을 떠올렸을 때 '슬프다'와 '기쁘다' 중 '슬프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50.2%, '어둡다'와 '밝다' 중 '어둡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45.3%, '단조롭다'와 '다채롭다' 중 '단조롭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3.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떠올리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친근하다'와 '낯설다' 중 '친근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1.6%, '매력적이다'와 '매력적이지 않다' 중 '매력적이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3.3%, '편안하다'와 '불편하다' 중 '편안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2%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Q 현충시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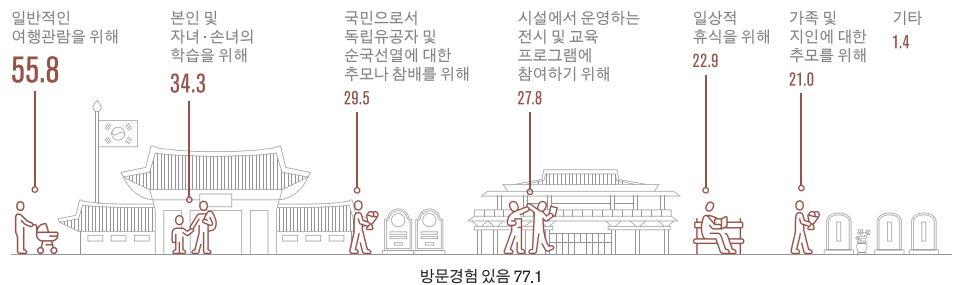


A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며, 특히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을 중요시

국민들은 제시된 다섯 가지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모두에 70% 이상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현충시설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모두 고루 수행했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3.97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3.19점)이나 '상징적 공간'(3.14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애항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2.22점)으로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Q 현충시설을 얼마나 방문하며, 무엇을 위해 방문하는가?

(단위: %)



A 평균적으로 5년에 3.3회 방문하며, 일반적인 여행관람을 위해 현충시설을 찾음

최근 5년 동안 1 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한 경우는 응답자의 77.1%이다.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여행관람을 목적으로 현충시설을 찾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충시설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인 및 자녀·손자녀의 학습을 위해' 또는 '국민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나 참배를 위해'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비율도 각각 34.3%와 29.5%로 높게 나타났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47

Autumn 2022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파리에서는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수단으로, 학교의 안뜰을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런던시는 현대적 건설기법(MMC)을 적용한 정밀 제조 주택(PMH)의 건설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꾀하고 있다.

국내동향으로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건축 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까지의 노정을 정리해본다.

오이시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학교 안뜰 - 엘리초등학교



Flow를 즐기는 시민들



청지장 목욕탕 내부 전경



해외

파리 오아시스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의의
048

런던의 빅데이터 기반
주택설계 디지털
플랫폼 개발:
PRISM 2.0
054

국내

국가승인 통계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의의와 발전방향
059

건축물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적인 노정(路程)
064

파리 오아시스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의의 | 각 학교의 안뜰을 개방함으로
써 더 많은 자연공간, 더 많은 식물, 어린이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더 많은 놀
이시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빗물처리와 수위관리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쓰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수
용하고, 특히 폭염기간에는 노약자처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런던의 빅데이터 기반 주택설계 디지털 플랫폼 개발: PRISM 2.0 | 영국의
PRISM 2.0은 전통적인 건설 방식에서 MMC로의 전환을 돕는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된 건설산업 분야를 활성
화하고 런던시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승인 통계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의의와 발전방향 | 건축
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산업 현황을 모
니터링하고 미래 전망이나 경쟁력 향상과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이슈
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도
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적인 노정(路程) |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
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생산하고 건축물을 시공하며 사용하고 폐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련 기술 개발, 전문 인력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효율적
인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파리 오아시스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의의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현재 파리의 학교와 대학의 안뜰은 하나의 ‘오아시스’로 변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파리 평의회에서 채택된 ‘파리 회복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목표는 단순하다. 일상생활에서 더 쾌적하고 모두가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상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21세기의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 도시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리는 ‘15분 도시’ 발표 이후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건축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시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채우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및 대학 부지의 활용을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였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학교와 대학 부지는 70ha 이상의 표면적을 차지하며 지방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와 대학의 안뜰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불투과성이 강하며, 이러한 공간은 도시 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파리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상쾌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락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에도 공원을 제외한 학교와 대학교 같은 공공건축의 안뜰은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는다. 그 수가 적지 않고 도심 안에서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이러한 공간을 개조하여 시민들에게 열어준다면 어떨까? 각 학교의 안뜰을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자연공간, 더 많은 식물, 어린이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더 많은 놀이시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

* 프랑스 기상청은 세기말까지 현재 기준 값 12.4°C에서 연평균 기온이 1~4°C 증가하고, 폭염이 내리쬐는 날도 10~2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공할 수 있게 된다. 빗물처리와 수위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쓰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특히 폭염기간에는 노약자처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다.

오아시스 프로그램 방법론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교육시설의 안뜰을 개조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기능에다 다른 용도를 더함으로써 학교가 새로이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지에 있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간 개선을 도모한다.

학교 운동장 개혁: 공간 설계 및 변형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은 먼저 새로운 놀이터, 즉 학생과 성인이 모두 만족하는 시설의 관련성을 제안한다. 안뜰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공간의 새로운 배치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를 위한 모임을 만든다. 모임의 주체는 관련 학교의 어린이와 학부모로, 이들은 설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면은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도록 안뜰 바닥 재질을 바꾸며, 그늘이 없는 경우 열섬현상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흐르는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공간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을 설치한다.

또한 자연공간 안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나무가 심어진 작은 숲, 식물로 뒤덮인 지붕과 벽, 교육용 정원, 과수원 그리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원두막 등 아이들이 자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는 앞으로의 식생을 감안하여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디는 종을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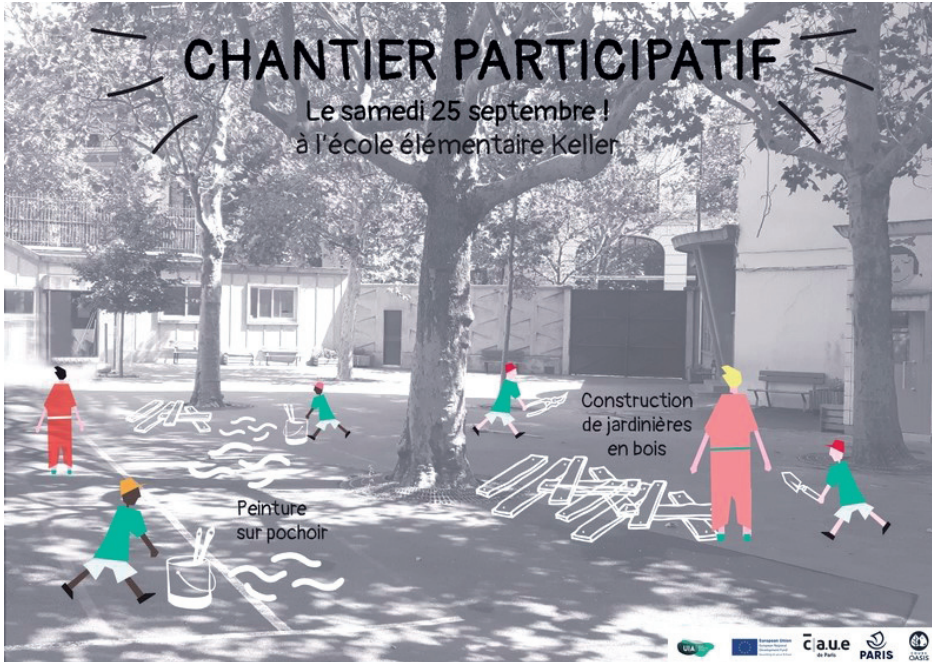
아울러 설치되는 기구와 가구는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유(다양한 세대, 성별 등)하고 다양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 설계 모임을 통해 학교의 어린이와 성인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인공 수직 암벽을 통해 계단, 등반 게임, 오두막, 감각 산책로가 제공되며 수직 암반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선정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고려한다.

이 밖에 물을 안뜰에 더 많이 두기 위해 분수대를 설치하고, 여러 형태의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여 놀이

©ville de Paris



오아시스 프로그램 공간 개념도



©ville de Paris

오아시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 안내

와 교육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나아가 도시에 상쾌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나무를 추가한다.

이렇게 변형되는 학교 안뜰은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에 성인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시민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이루어진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간 개조가 이뤄져야 이후 적극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방법론(공동 설계를 통한 시민 참여, 새로운 교육시설 및 여가시설로서의 접근)에서 도입된 참신함은 다양한 관련 행위자의 강화된 능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아이디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물 관리, 교육 정원 가꾸기, 세대와 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규격 등 프로젝트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하여 교육 및 회의가 제공된다.

오아시스 코스의 재구성은 코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학교 교과시간과 과외시간 동안 오아시스 코스는 다음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야외 공간의 교육적 사용(교육 정원, 야외 교실, 새로운 스포츠 활동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용은 특히 자연으로의 이동 및 접촉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어울리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장비의 선택과 위치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일부 시설은 또한 공간의 공유(접근 가능한 녹지, 등반 게임 등)에 보다 자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시설에서 성인과 어린이가 좋은 조건에서 공간 사용에 대한 집합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일부 시설은 학교 구성원 외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별 사용 시간’을 설정한다. 교육시간 외에는 도시의 상황에 따라 주변 시민들에게 학교 프로그램이 공개될 수 있다. 올여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가장 취약한 노인과 약자들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15분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부 오아시스 코스는 토요일에 열리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역 협회는 특히 오아시스 프로젝트 요청을 통해 파리시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을 더 잘 적응하고 보급하기 위한 평가 작성

현재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식은 평가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와 피드백을 수집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원과의 연결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기후, 온도, 소음, 생물의 다양성 잠재력, 웰빙, 사회적 영향)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바람직한 쪽으로 개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프랑스 전역, 나아가 유럽 전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를 오픈소스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아시스 프로젝트 ‘혁신적인 도시 활동’의 단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젝트 관련 목표 설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웰빙,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개발을 제안하는 워크숍 개최
- 2) 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일부로 워크숍 개최,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
- 3)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교육팀과 시립 기술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인식 및 교육세션이 제공되어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적용을 가능케 함
- 4) 인들의 변형: 친환경 재료(흙, 나무, 모래), 더 많은 식물, 물의 재활용, 독창적 놀이 및 여가를 위해 사용될 공간을 필요에 맞게 조정, 투과성 토양으로 대체하고 인들의 특성을 활용한 조경하면서 사색을 위한 공간 제공
- 5) 목공, 재료의 손질, 페인팅 등 안뜰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의 작업시간 이외에 시민 참여 프로젝트 구현: 학부모,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 교육팀이 시공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연결됨
- 6) 개발된 안뜰에서 시민들은 공간을 공유하고, 교육시간 외에 수업을 열도록 시민들을 독려
- 7) 전체 프로세스와 전반적인 영향(기후, 사회환경)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복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가받음

이처럼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안뜰에 대한 공간인식 변화 및 제고)가 동반된다. 프로젝트 시작 전후에 어린이들에게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직접 관찰과 문서 분석을 통해 구축된 지표의 그리드 덕분에 작업 전후 과정의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발전

* 2021년 1월부터 토요일에 여러 학교와 대학 시설을 일반인에게 실험적으로 개방하였다. 파리 시내 28개 어린이집은 학군의 모든 가족에게 개방되어 적합한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토요일 아침에는 지역 협회에서 예술·음악·놀이 또는 신체 각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주 활동 대상은 6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으로 하였다. 42개의 학교 및 대학 안뜰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된다. 하지만 겨울에는 개방시간과 수업의 수가 줄어든다. 또 학교의 방학 기간에는 열지 않는다.

** 이 제안서는 모든 연령대에 제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할 때는 제안하는 활동과 내용, 활동 대상, 대상 학군의 가능한 학교 및 대학교 공간, 사용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학교 안뜰 - 켈러초등학교(Cour Oasis de l'école élémentaire Keller)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학교 주변의 사회적 연결에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효과성과 결과가 공개된다.

시사점

최근 파리는 도시 프로그램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5분 도시 정책 발표 이후 공간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파리시가 찾은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안뜰이라는 공간이다. 하나의 기능에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학교 안뜰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 공간은 학교가 선택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안뜰은 건물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열고 닫히는 안뜰은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도시 속 열린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르주 외젠 오스만(Georges-Eugène Haussmann)이 파리를 개조할 때 지어진 건물의 형태는 한 건물을 공유하는 이들이 하나의 안뜰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허락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안뜰이다. 그러한 공간에서 살아온 파리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중에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마당이라는 공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마당을 활용하여 이웃과 교류를 해 왔고 때로는 실(室)의 연장으로, 때로는 마을의 연장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빨래를 널면 빨래방, 결혼식을 하면 예식공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례의식을 위한 공간이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운동장을 거쳐 학교 건물로 진입한다. 학교 건물의 배치 또한 전통가옥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ㄱ’자, ‘ㄴ’자, ‘ㄷ’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다. 공유공간인 운동장은 교문을 통해 보호받고 있지만 운동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웃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은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프랑스에서 기울어는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공간의 개방은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서양의 뜰이나 정원처럼 하나의 기능에 갇혀 목적을 잃으면 공간마저 없어지지

만, 처음부터 다양하게 활용하였던 마당과 같은 공간은 목적이 없어도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교 운동장은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뜰과 운동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설치로 밀도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파리 학교의 안뜰과 달리, 우리나라 학교의 운동장은 그 규모가 적어도 안뜰의 몇 배는 된다. 따라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나아가 건축·도시·조경과 관련된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큰 규모의 운동장이 하나의 숲 또는 잔디밭이 되거나 부족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된다면, 또한 그것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 도시의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학교의 내부 공간만큼 외부의 공간을 먼저 바꾸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놀이·여가 시설은 그야말로 사회적 축소판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공생을 도모한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운동회처럼 1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성 학교행사에서 벗어나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 운동장은 더 이상 흙으로 덮인 허허벌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직면한 문제와 도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하는 공간변화는 ‘학교’, ‘문화’, ‘시민 참여’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그 시작인 학교 공간의 안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도시 변화를 시도하려는 이러한 파리의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우리나라의 도시 인프라 활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 마련을 위한 각 지역 전략 등 물리적·공간적·사회적 환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1 파리 건축, 도시 계획 및 환경 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auc75.fr/content/qu-est-ce-qu-une-cour-oasis>
- 2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 3 파리교육연맹 홈페이지. <https://ligueparis.org/>
- 4 프랑스 기상청 홈페이지. <https://meteofrance.com/>
- 5 Stratégie de Résilience de Paris/ 파리시청 / 07.2017
- 6 Cahier de recommandation / 파리시청 / 06.2020
- 7 https://www.youtube.com/watch?v=x9Icq1QSQvY&ab_channel=CAUEdePARIS

런던의 빅데이터 기반 주택설계 디지털 플랫폼 개발: PRiSM 2.0

정기성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들어가며

코로나19 시기 영국 런던시는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을 경험하였다. 런던시의 주택 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높아진 시장불안은 도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주택설계 및 건설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활력 감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시는 현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기법을 활용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 내 주택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 ‘PRiSM 2.0’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PRiSM 2.0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함께 런던의 주택·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현대적 건설기법 수요 증가

코로나19는 현장 작업 중심의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영국도 2020년 사회적 봉쇄(Lockdown)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단행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이 일터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은 런던과 같은 대도시 내 작업현장은 멈추었으며, 주택계획 및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적 건설기법(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MMC)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MMC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먼저 주택 건설을 위한 제조 및 부분 조립을 선행하고, 이를 건설 대상 부지로 운송한 후 최종 완성하는 모듈식 주택 건설 방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주택·건설 부문 침체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도심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MMC를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훨씬 적은 인력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현장 인력 수 감소는 영국 내 코로나19 건설 작업 지침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므로 MMC는 코로나19 시기의 작업환경에 적합해 보인다.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은 코로나19 시기에 MMC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PRiSM 2.0 프로그램을 민간과 협업하여 개발하고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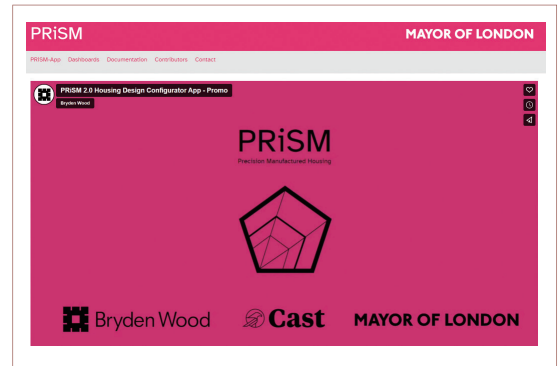
런던시의 PRiSM 2.0 프로그램 서비스 도입

런던시 시의원이자 주택 개발 부시장인 톰 코플리(Tom Copley)는 “PRiSM 2.0 프로그램은 주택 건설 및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런던시를 다시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PRiSM 2.0에 대한 런던시의 기대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PRiSM 2.0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로 배포되고 있다.

PRiSM 2.0 개요

PRiSM 2.0은 주택 건설업자가 런던시 내 주택 건설을 계획할 때 MMC를 적용하여 ‘정밀 제조 주택(Precision Manufactured Housing: PMH)’ 건설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PRiSM의 첫 번째 버전은 2019년에 출시되었으며, 최근 MMC를 적용한 고품질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업데이트된 새 버전(2.0)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PRiSM 프로그램의 개발은 모범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



PRiSM 2.0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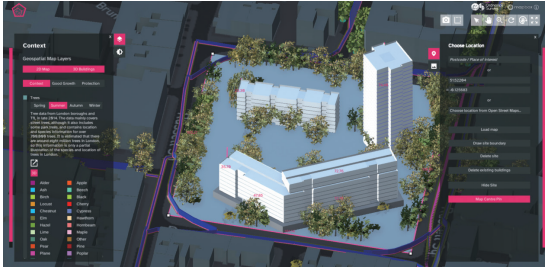
출처: PRiSM 홈페이지. www.prism-app.io/index.html

한 자금은 런던시의회(Greater London Authority)와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그리고 민간 영역의 주택협회 L&Q와 다양한 민간 투자자·개발자(Legal & General, Greystar 등)가 지원하고, 최신 PRiSM 2.0 버전까지의 개발 과정에서는 런던시(Mayor of London)와 민간 주택개발회사인 브라이든 우드(Bryden Wood), 캐스트(Cas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PRiSM 2.0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와 건축가·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PRiSM 2.0의 MMC 디지털 설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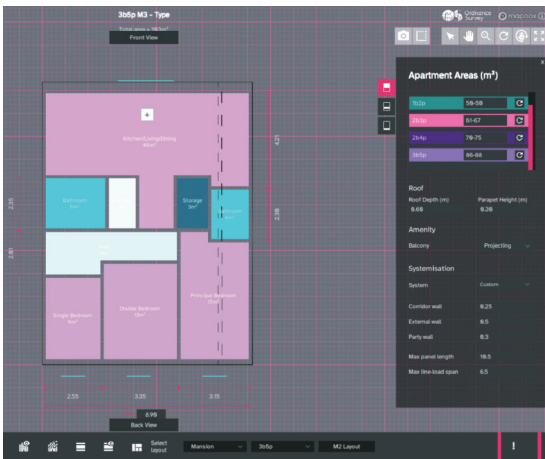
PRiSM 2.0은 MMC의 실행 가능성을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테스트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미 많은 3D 건축설계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를 통해 주택설계를 위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PRiSM 2.0의 특별한 점은 런던시 주택설계 표준과 계획 데이터 및 건축 규제 데이터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주체가 최적화된 MMC



PRiSM 2.0 실행 화면:
주변녹지, 대기환경 조건, 건물 높이 제한 적용



PRiSM 2.0 실행 화면:
PMH 건설을 위한 규격화된 설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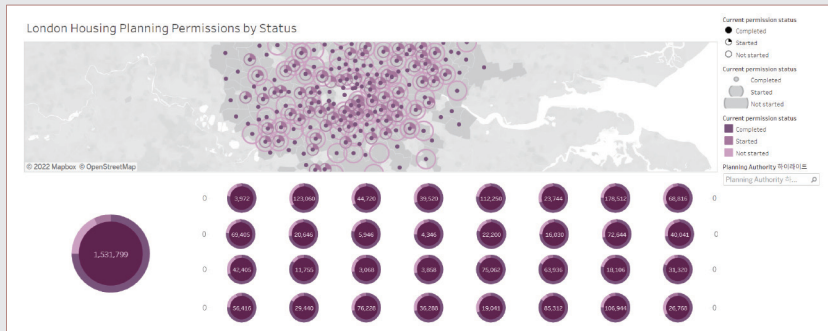
PRiSM 2.0 실행 화면:
PMH 건설을 위한 세부 주거 유닛 설계 기능
출처: PRiSM 홈페이지, www.prism-app.io/index.html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건물, 런던시장의 공간계획 규칙, 교통 인프라, 홍수 위험 및 교통흐름 모델링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택설계를 3D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설계가 속한 런던 내 지역에 적용되는 다양한 건축환경 사항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건설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부지 식별 단계에서부터 MMC 기법으로 사전에 제조된 주택의 설계와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 적합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런던시 내 주택공급을 위한 설계 전 과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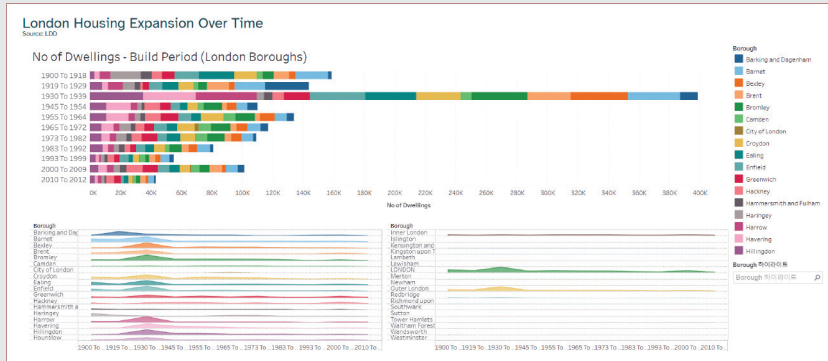
건축설계의 측면에서 PRiSM 2.0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주거 유닛 수, 층고 높이 및 건물 유형과 같은 기본정보만 입력해도 대상지에 건축물을 나타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은 PMH 건설을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각 주거 유닛 공간 크기를 표준화하고 건물 내벽 파티션을 일정하게 정렬시키는 기능을 한다.

런던시 지역별 건축 빅데이터(Architectural Bigdata) 대시보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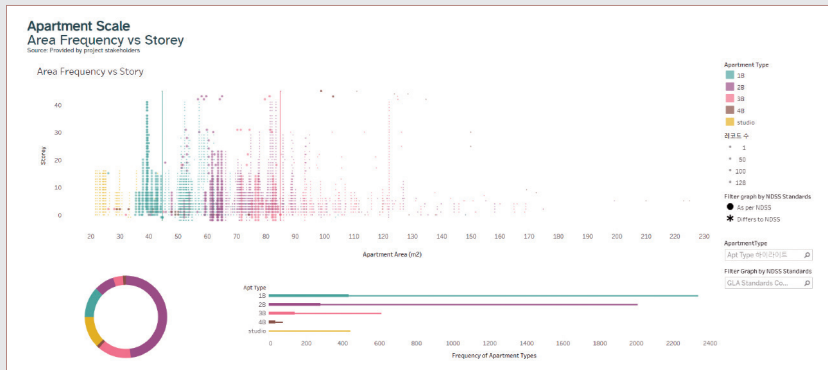
PRiSM 2.0은 3D 환경 내에서 디지털 설계 기능과 함께 런던시의 다양한 주거환경 및 법적 제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런던시 내 각 자치구(Borough)의 지역 편의시설 및 토지 분류 등 지역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PRiSM 2.0은 지역의 건축 데이터를 대시보드(Dashboard) 형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도시 규모의 오픈소스 데이터와 건물 규모 데이터의 통합 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빅데이터화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통해 런던시의 각 지역과 주택 및 주거환경의 현황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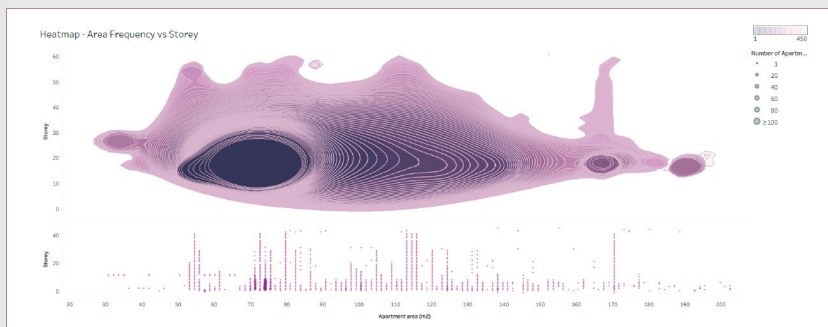
PRiSM 2.0
대시보드 서비스:
지역별 주택 건설계획
허가 현황



PRiSM 2.0
대시보드 서비스:
지역별 주택공급량



PRiSM 2.0
대시보드 서비스:
지역별 아파트 유형별
재고량



PRiSM 2.0
대시보드 서비스:
아파트 층수별 재고량
히트맵
출처: PRiSM 홈페이지.
www.prism-app.io/index.html

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PRiSM 2.0의 대시보드 서비스는 런던 내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PMH 건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PRiSM 2.0의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세부 데이터 세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규모(City Scale)의 런던 주택 건설계획 허가 상황을 지역별로 나타내어 준다. 또한 자치구별로 그동안의 주택공급량과 주택 유형별 재고량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두 번째로 건축물 단위(Building Scale)에서 런던 내 건축물의 높이, 아파트 면적, 아파트 유형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방 단위(Room Scale)에서 주거 공간별(거실, 욕실, 부엌, 침실, 다용도실, 복도, 로비 등) 면적 수준 비교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오며

국내에서 코로나19는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도심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건설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의 PRiSM 2.0은 전통적인 건설 방식에서 MMC로의 전환을 돕는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된 건설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런던시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 도시·건축·규제·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3D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에 물

리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 디지털화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환경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강하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수요가 높으며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영국의 PRiSM 2.0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선 제조 방식의 모듈화 주택으로 대표되는 MMC에 대한 고려 ②도시의 주택·건축·규제·환경의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대시보드 서비스 ③3D 환경에서의 지역 데이터를 고려한 건축설계 시뮬레이션 ④PMH를 가능케 하는 표준화된 설계 기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쉽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⑤오픈소스 앱 방식의 서비스 등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의 빠르고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PRiSM 2.0 사례는 우리나라 건설 방식의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1 PRiSM 홈페이지. www.prism-app.io/index.html

국가승인 통계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의의와 발전방향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6월 5일 시행되었다.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를 정의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약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설계공모 확대, 건축기획업무 정립 등 건축서비스 활동에 있어 중요한 사안들이 하나둘 성과로 가시화되었다. 최근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이 국가로부터 승인받았다.(승인번호 제46200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직접적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지정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조사’의 결과값을 가공하여 일부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지만 사업체 및 종사자, 매출액 정도의 기초 정보에 한정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는 짚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장현황과 근무환경 실태, 인력 등 변화양상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공·생산되는 통계자료의 책임 주체가 없으므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과 대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공사계약통계’ 등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작성 중인 통계만 해도 20개가 훌쩍 넘는다. 이는 국내외 건설시장 동향 분석, 건설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정책 등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와 더불어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건축서비스 산업통계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편향된 건축 정책 수립과 나아가 왜곡된 시장 환경 확대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한다.

한편 건축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의 필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각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 의무로 규정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정책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또한 표준정보로서 국가통계를 필요로 한다.

국가통계는 건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구·사회,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업생산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전략과도 유관하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통계라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의 국가승인 과정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다년간 실태조사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7·2019·2021년에는 연구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세 차례 시범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산업으로 재설정하고 모집단 및 표본, 조사항목과 결과표를 설계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시험조사는 특정 연구과제에서 설정한 세부업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조사기획과 실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예를 들면 2017년 조사대상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나 2019년에는 ‘도시 및 조경설계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추가하였고, 2021년에는 건축서비스의 대상을 건축물에 한정함으로써 ‘도시 및 조경설계 관련 서비스업’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표본수와 조사 문항도 달라졌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근본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의 승인통계를 지향하므로 시험조사 중 수차례 통계청과 업무협의를 거치며 조사방법 등을 보완하였고, 국가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의 기획뿐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과 관리를 위한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통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건축공간연구원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정책 지원 및 연구 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직접적인 조사 경비와 연동되므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규모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 관계자 업무협의 과정

- (2022.4.5) 통계작성 승인신청 계획서 및 문서 검토(통계청 산업통계과)
- (2022.1.25) 통계표본 설계 방법 및 요건 협의(통계청 표본과)
- (2021.11.9) 통계작성 신청서류 검토, 권한 확보방법 협의-법률 개정안,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신청 방안(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21.4.9) 통계표본의 수, 층화방법 등 표본 설계 자문(통계청 표본과)
- (2021.2.18) 통계작성 당위성, 실태조사 책임 및 통계작성지정 기관 지정 논의(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20.5.20) 통계작성승인 신청서 내용 검토(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19.6.17) 승인통계 작성 요건, 절차 등 일반사항 검토(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이를 위해 우선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2022.3.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질적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 위임 조건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실태조사의 위임’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5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제1호 통계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승인이 고시되었다(통계청고시 제2022-211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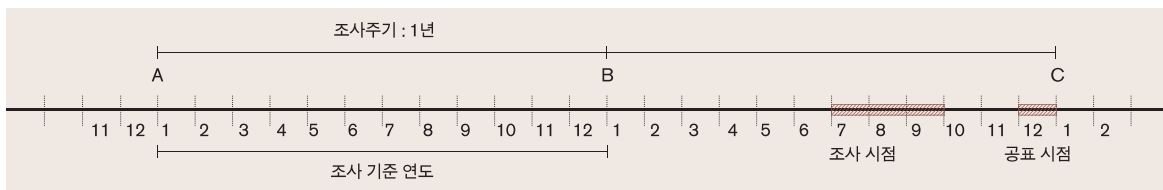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에 속하는 산업이다. 이는 대분류(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세세분류 산업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건축 실내공간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위의 3개 세세분류 산업을 모집단으로 하며, 종사자 규모별로 7개로 층화한 후 표본을 정하는데, 금년에 시행하는 1차 실태조사의 총 표본 수는 900개다. 조사 기준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대상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합계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9,414	2,171	536	240	68	46	31	12,506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51	855	550	423	104	81	31	4,095
인테리어 디자인업	1,757	258	72	23	4	1	-	2,115
전체	13,222	3,284	1,158	686	176	128	62	18,716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기간



점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이며, 매년 시행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는데, 크게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분야별 종사자 현황과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 및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D. 교육 및 홍보,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F. 사업체 일반현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3개의 세부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단순히 산업 규모의 변화 추이를 넘어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발주제도, 대가 산정 등 산업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 및 교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생산성·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문항: 최종 승인 문항

부문	조사항목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A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	A8. 민간 프로젝트 대가 산정 방식 및 평균 대가
	A2. 매출액과 수주액	A8-1. 대가 산정 방식별 수주 건수
	A2-1. 매출액	A8-2. 대가 산정 방식별 평균 대가
	A2-2. 수주액 및 비중(공공/민간 프로젝트)	A9.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프로젝트 기획업무 수행 건수 및 소요 비용
	A3. 제인(인찰) 및 수주(낙찰, 수의계약 포함) 프로젝트 건수	A9-1. 프로젝트 기획업무 수행 건수
	A4. 업무 분야별 수주액 비중	A9-2. 프로젝트 기획업무를 위해 소요된 비용
	A5. 수주액 상위 발주처 유형	A10. 향후 진출 계획이거나 관심 있는 업무 분야
	A6. 공공 프로젝트 수주액 상위 발주 방식	A10-1. 건축서비스 분야
	A7. 민간 프로젝트 수주액 상위 발주 방식	A10-2. 건축서비스 외 분야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B1. 해외 프로젝트 수행 유무	B1-4. 해외업체와 협업 분야
	B1-1. 해외 프로젝트 계약 건수 및 매출액	B2. 해외 프로젝트 참여 의향
	B1-2. 해외 프로젝트 주요 계약 성격	B2-1. 해외 프로젝트 진출 희망 지역
	B1-3. 해외업체와 협업한 해외 프로젝트 건수	B2-2.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C1. 스마트건축 소프트웨어 및 장비 보유 현황	C3. 소프트웨어 및 장비 활용 수행 업무 비중
	C2. 소프트웨어 및 장비 활용 수행 업무 종류	
(D) 교육 및 홍보	D1. 직원 교육	D3.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체 홍보 방식
	D2.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E1. 총 종사자 수	E5. 입사자 및 퇴사자 수
	E1-1. 종사자 구성(1): 국적, 성별, 연령, 학력	E5-1. 퇴사 이유
	E1-2. 종사자 구성(2): 부서, 기술자 등급	E6. 평균 연봉(기술자 등급별)
	E2. 종사자 자격 보유 현황	E7. 초과 근무 유무
	E3. 예상 종사자 수	E7-1. 초과급여 지급 여부
	E4. 직원 채용 시 애로사항	E7-2. 초과급여 지급 수준
(F) 사업체 일반현황	F1. 조직 형태	F3. 사무실 운영 여부
	F2. 연간 지출액 및 항목별 지출 비중	F3-1. 사무실 점유 형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 및 활용 목적

주요 항목	활용 목적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 발주제도 개선 / 건축서비스의 표준화, 적정 대가 마련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전문인력 육성 / 산업생산성 향상
D. 교육 및 홍보	생산성 및 지속성 향상 / 산업경쟁력 향상 / 홍보전략 수립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
F.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업경쟁력 향상, 고용 및 창업 촉진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수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행 산업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의 단서를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실행 의의와 향후 계획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지난 7월 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까지 조사 및 검수가 진행된다. 이어 11월까지 조사내용의 최종 검토 및 분석을 거쳐 통계작성을 완료하고, 12월 건축공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된 통계는 보고서와 함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되며 전자문서와 엑셀데이터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통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국가승인 통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 업무범위 및 대가, 고용, 혁신, 경쟁력 향상 등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정부의 기본 및 실행

계획에서 거론되는 정책과제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역할 의의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사업추진이나 연구 및 학계 등 다방면의 이용자들, 나아가 일반 국민도 건축서비스산업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래 전망이나 경쟁력 향상과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통계작성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매년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점, 또는 주목해야 할 건축서비스 이슈와 주제를 발굴하는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요구되는 쓸모 있는 통계 개발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22).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
- 2 건축공간연구원. (2022). 통계작성지정기관지정 신청서.
- 3 건축공간연구원. (2022).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건축물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적인 노정(路程)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직접배출* 기준 약 5,210만 톤이며,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 약 7억 2,760만 톤 가운데 7% 정도를 차지한다. 2021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축물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1,710만 톤 감축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8년 내에 ‘감축률 32.8%’라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은 약 731만 동(주거 458만 동, 상업 134만 동, 기타 139만 동)이다. 주택공급 확대 등 건축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년 4만 동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약 40%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성능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이 많은 데다 매년 건축물 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탄소배출량은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건축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단열기준 상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등 우리 사회는 건축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직접배출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의 사용 증가 등 다양한 사유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배출**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을 기점으로 건축물 분야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NDC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12월 발표

* 건축물 내에서 난방·취사 등을 위해 화석연료(도시가스, 프로판, 석유류 등)를 연소함으로써 탄소가 배출되는 것.

** 건축물 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해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

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건축물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담았다.

- 1) 건축물성능정보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 2)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 3)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 4)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

새로운 건축물은 고성능인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성능정보 통합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행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건축물성능정보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이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건령·면적·위치 등 건축물 관련 기본 정보와 에너지 성능이나 에너지 사용량 등 에너지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건축물 이력과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계열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정책 설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건축물성능정보 공개 제도는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민간에서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성능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2,000㎡ 이상 업무시설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건축물성능 관련 정보 및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이상의 성능이 담보된 건축물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력을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고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인정서를 발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 짓는 건축물을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확대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제도정비를 하고 있다. NDC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는 ZEB 적용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

	2020	2023	2024	2025	2030
공공	5등급 (1,000㎡ 이상)	5등급 (50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4등급 수준 (규모·용도 미정)	3등급 수준 (규모·용도 미정)
민간	-	-	5등급 수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등급 수준 (1,000㎡ 이상)	5등급 수준 (500㎡ 이상)

상 및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 조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였다. 공공 공동주택은 당초 2025년 적용계획을 2023년으로 2년 단축하였고,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적용시기를 1년 앞당겼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ZEB 적용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물론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ZEB 5등급 수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계획 건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도입된 ZEB는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용이 시작된 2020년부터 인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ZEB 의무화 로드맵을 거쳐 2025년에 연면적 1,000m²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ZEB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본격화하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로 신축하려면 비용이 늘어난다. 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세 감경 등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금 융자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R&D 투자 증대, 전문인력 육성, 관련 산업 및 금융 육성, ESG 및 RE100 등 기업평가 제도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해 2021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하여 1,700여 동의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마쳤다. 올해는 국비 2,245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600개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2020년부터 2년간 약 4,000억 원을 투입하여 9만 3,000호를 그린리모델링하였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물 연령이 일정기간을 경과하고 성능이 현격히 저하된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여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에 대한 이차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6만 7,000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공동주택 창호개선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루 만에 시공을 마칠 수 있는 창호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투자 주체가 민간인 데다 간편한 창호개선 위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200만 동의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총량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높이고, 더

불어 보조금이나 재정지원 같은 효과적인 지원책을 적절히 병행하는 등 정교한 정책 프로그램 마련과 지속적인 시행이 중요하다.

단열공사 등 건물 구조체를 개선하는 작업을 수반하여 본격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여 정비하고, 업무시설의 경우 RE100이나 ESG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기업들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과 정비계획 인가 등 사업 추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창호개선 등 간단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

산업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고효율 건축설비기기 보급이나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 유도 등의 단기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인 도시가스 난방 대신 전기히트펌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총량 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관할 공공건축물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마무리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류가 그동안 이룩한 문명과 생활방식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투자도 늘려야 하며, 우리 삶의 행태와 문화 또한 바꾸어야 한다.

건축물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물 없이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건축물 사용에 있어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에 따라 삶의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를 생산할 때, 그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시공할 때, 건축물을 다 사용하고 폐기할 때 등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사회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생산하고 건축물을 시공하며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물론 산업계·학계 등과의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인 노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노정의 끝, 즉 우리의 밝은 미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플랜테이션 파리’ 옥상 농업 프로젝트

옥승철

옥스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옥상에 들어선 대규모 텃밭

프랑스 파리 철도부지 Chapelle International 지구의 초대형 물류 센터 건물 옥상에 7,000m² 규모의 옥상 텃밭이 조성되었다. ‘플랜테이션 파리(Plantation Paris)’라 불리는 프로젝트에 의한 것으로, 프로젝트는 도시 거주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과의 연결을 재창조하겠다는 비전 아래 시작되었다. 전체 텃밭 규모 중 1,200m²는 수경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으며, 유기농 씨앗으로 심은 양배추·라즈베리·고추·토마토·순무 등 연간 50톤, 70종 이상의 채소와 과일, 식용 꽃들이 재배되고 있다.

특별한 점으로 건물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온실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써 난방을 위한 전기세와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옥상 농업의 커뮤니티 기능과 상업적 활용

플랜테이션 파리 옥상농업 프로젝트는 파리 시정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협력 프로젝트이다.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컬티베이트(Cultivate)가 주도하였으며 프랑스의 식료품 마트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프랑프리(Franprix)와도 협력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적인 활용보다는 상업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요리 수업과 요가 수업

옥상 공간은 채소밭, 온실,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벤트 공간은 몽마르트르가 보이는 1000m²의 유리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파리의 다른 옥상텃밭과는 다른 한 가지는 다양한 상업적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벤트 공간에서는 옥상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을 활용한 요리 수업, 옥상 텃밭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 등이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요리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Plantation Paris 옥상 전경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옥상 공간 활용 이벤트



커뮤니티 공간



요리 워크숍



요리 수업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요가 수업

요리 수업에서는 유명 셰프가 직접 옥상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활용하여 발효 요리 등 건강 요리 관련 수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요가 수업 또한 유명 요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요리 수업 참가비는 1회 75유로(한화 약 10만 원)이고, 요가 수업은 1회 30유로(한화 약 7만 원 정도)를 내면 참가할 수 있다.

재배 식물의 유통 및 온라인 판매

매년 50톤의 채소와 식물들은 파리 주변의 식품 체인점인 프랑프리(Franprix)에 직접 납품되고 있으며 주변 레스토랑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위한 배달은 파리의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여 도시 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배달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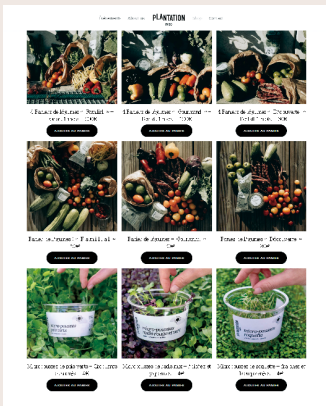
수확물은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직접 친환경 포장을 하고 있다. 상품은 예를 들어 바구니에 양배추 1개, 라즈베리 100g, 상추 1상자, 고추 400g, 토마토 800g, 순무 500g 등을 담아 판매한다.

참고문헌

- 1 컬티베이트 홈페이지, <https://cultivate.fr/plantation-paris/>
- 2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 3 플랜테이션 파리 인스타그램 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plantationparis/>

생산물 온라인 판매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2022년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 결선 작품 발표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
<https://www.pooliscool.org/news/2022/6/6/new-model-for-outdoor-swimming>
<https://www.mynewsdesk.com/se/lund/pressreleases/hage-i-brunnshoeg-faar-lunds-stadsbyggnadspris-3162701>
<https://sportapilsdarzi.lv/en/about>
<https://www.okra.nl/projecten/catharijnesingel/>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을 놓고 우열을 가릴 다섯 개 결선작이 선정되었다.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은 공공 공간을 창조하거나 복구, 개선한 우수 프로젝트를 시상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바르셀로나 현대 문화센터(Center of Contemporary Culture of Barcelona: CCCB)에서 격년으로 수여하고 있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야외 수영장: Flow

‘Flow’는 벨기에 브뤼셀에 조성된 작은 야외 수영장으로, 비영리단체 ‘POOL IS COOL’의 프로젝트다. 이 야외 수영장은 주민들이 모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설계와 설치에 50 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였고, 주민 워크숍이나 커뮤니티 행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도착한 공공공간: Hage

스웨덴 룬드 외곽, 아직 개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땅 위에 ‘Hage’가 들어섰다. 부지의 소유주인 룬드 대성당 측은 룬드의 도시화와 확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후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는 쉼터이자 공공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고 프로젝트 의도를 밝혔다. 공간은 2m가 넘는 벽돌 벽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폐공장의 철거 자재를 재활용한 것이다. 열린 공간에는 벤치와 테이블이 자리하고, 안뜰에는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Flow를 즐기는 시민들

출처: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검색일: 2022.9.13.)



Hage 전경



Sporta pils dārzi의 이동형 원예 박스

출처: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검색일: 2022.9.13.)



복원 후 생 세르낭 대성당 광장



Catharijnesingel 복원 후

자연과 커뮤니티가 만나는 정원: Sporta pils dārzi

‘Sporta pils dārzi’는 도시의 미이용 부지에 시민들이 나서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한 사례다. 라트비아의 리가 시민들이 활동가들과 결성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2020년 정원 설계 시에는 150명 이상의 시민이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설계에 참여하였다. 정원 전체 공간은 주민들이 분양 받는 식재공간과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포켓공간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정원 공간은 모두 지상층에 조성하고 이동식 원예 박스를 다양한 높이로 제공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역사와 공공성의 회복: 생 세르낭 대성당 광장 복원 프로젝트

프랑스 툴루즈의 생 세르낭 대성당(Saint Sernin)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도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건축물이다. 2017년부터 대성당 주변 주차장을 녹지와 보행자 산책로를 갖춘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봄 완료되었다. 이 광장은 녹지가 부족한 툴루즈 지역에 공을 위한 정원이 되어주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보행로를 포장하는 등 기존 공간과 조화와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복원 모델: Catharijnesingel 복원 프로젝트

네덜란드어로 ‘sin’gel’은 도시에 방어 목적으로 조성한 운하를 뜻한다. Catharijnesingel 복원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역사적인 운하 공간을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이자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도로를 제거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했고, 카누 등 다양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식재되는 식물, 포장재 등을 세심하게 선택했는데, 심사위원단은 하천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해 도시의 질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왕립 덴마크 아카데미, 환경영향에 따른 건축자재 피라미드 개발

<https://www.archdaily.com/984663/what-is-the-environmental-impact-of-each-building-material>
https://www.materialepyramiden.dk/?utm_medium=website&utm_source=archdaily.com

왕립 덴마크 아카데미 소속 Centre for Industrialised architecture (CINARK)는 식품 피라미드에 착안하여 2019년 '건축자재 피라미드 (Construction Material Pyramid)'를 포스터 버전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이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였다. 건축자재 피라미드는 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EPD)*에 따라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 언어로 설명한다. 특히 EPD에서 말하는 수명 주기 단계** 중 원재료 추출부터 생산에 이르는 A1~A3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의 '생산'에 관계된 환경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건축자재 피라미드를 활용하여 환경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수행할 때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인 지구온난화 지수(GWP), 오존파괴가능성(ODP), 광화학 오존 생성 가능성(POCP), 산성화 가능성(AP), 부영양화 가능성(EP)을 건축자재에 적용해보고 잠재적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건축자재 피라미드 디지털 버전은 건축가, 디자이너, 컨설턴트 등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재 간 CO₂ 발자국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웹상에서 자재의 크기와 부피 등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 건축자재별 지속가능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산 도구를 지원한다. 한편, 피라미드에 구성된 건축자재는 덴마크 건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덴마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선정되었다.



건축자재 피라미드

출처: 건축자재 피라미드 홈페이지. <https://www.materialepyramiden.dk/> (검색일 : 2022.9.6.)

-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 유럽 표준 EN15978 참조

©Centre for Industrialised Architecture (CINARK) from Royal Danish Academy

영국, 주거용 건물 과열 방지 위한 정책 시행

<https://www.planningportal.co.uk/applications/building-control-applications/building-control/approved-documents/part-o-overheating/approved-document-o>
<https://eeabs.co.uk/the-new-part-o-building-regulations-overheating-approved-document-o/>

영국 정부가 여름철 주택 건물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개편, 올 6월부터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기후 변화와 도시 열섬현상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과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주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단열, 밀폐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주택 내부 과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CIBSE(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Services Engineers)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주택 과열과 관련된 건축법령 Part O의 전면 개정을 추진, 개정안을 2021년 12월 발표, 올해 6월부터 시행하였다.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요양원, 학생 기숙사 같은 상업적 거주 시설 또한 포함한다.

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과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사량이 건물 내부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방지하는 것과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Part O에는 주거 건물 건축 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 전 지역을 ‘고위험 지역(High risk location)’ 과 ‘일반 위험 지역(Moderate risk location)’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에는 런던과 맨체스터 도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바닥면적 대비 창문(유리)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의 최대 한도, 최소 개방 면적 비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서는 도시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때 보다 달성하기 쉬운 기준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CIBSE에서 개발한 과열 평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시간에 건물 내부 온도가 지정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셔터나 외부 블라인드, 어닝 설치나 창문 사이즈와 디자인, 방향 등 외부 열 차단을 위한 설비적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런던 주택가 모습
출처: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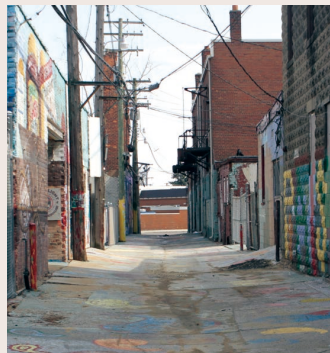
디트로이트, 근린 골목 활성화 시범사업 'Arts Alleys Initiative' 발표

<https://detroitmi.gov/news/mayor-duggan-and-detroit-ace-announce-plans-activate-neighborhood-arts-alleys-around-city>

디트로이트 예술, 문화 및 기업가정신 사무국(Arts, Culture, & Entrepreneurship Office: ACE)은 지난 7월 27일, 상업 및 주거시설에 위치한 근린 골목 활성화를 위한 'Arts Alleys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Arts Alleys Initiative는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건(Mike Duggan)이 추진하는 'Blight to Beauty' 캠페인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역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디트로이트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을 통해 30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2년 동안 약 2,000개에 달하는 골목을 정비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수행해 온 덩불, 쓰레기 등을 치우는 골목 정화 작업과 예술 활동 기반의 커뮤니티 그룹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CE는 도시 전역에 위치한 Jefferson Chalmers, Old Redford, Schulze, NW Goldberg, Springwells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올해 가을까지 거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조경,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골목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회사 사이드워크 디트로이트(Sidewalk Detroit)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참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발생하는 국지적 홍수를 대비하고,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Arts Alleys Initiative 프로젝트 전후 예상 모습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출처: 디트로이트시 홈페이지, <https://detroitmi.gov/news/mayor-duggan-and-detroit-ace-announce-plans-activate-neighborhood-arts-alleys-around-city>(검색일: 2022.9.6.)

* 실업급여 연장, 세금공제 연장, 지원금 지급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침체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해 제정됨

시드니, 건축유산과 도심 공원의 연계 복원 추진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sydney-park-brick-kilns-and-chimneys-to-be-preserved-and-restored>
https://www.cityofsydney.nsw.gov.au/proposed-works-maintenance/proposed-design-stabilising-landscaping-sydney-park-brick-kilns-surrounds?utm_source=cosnews&utm_medium=referral&utm_content=explainer&utm_campaign=sydneybrickconcept
<https://www.smh.com.au/national/nsw/the-plan-to-transform-sydney-park-s-brick-kiln-and-chimney-site-20220712-p5b10v.html>

시드니시가 시드니 공원(Sydney Park)에 남아 있는 건축유산인 벽돌 가마와 굴뚝의 구조물을 복원하고,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을 확충하는 등 공원 공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디자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드니시는 도시의 산업 유산을 기리고 지역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2017년 지은 지 120여 년 된 벽돌 가마와 공장 굴뚝을 수리하고 복원한 바 있다. 그때 과거의 형태로 다시 세워진 네 개의 굴뚝은 시드니 공원 북서쪽으로 솟아 있으며, 시드니 공원의 특징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는 복원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벽돌 가마에 손상이 생겼으며 이를 다시 안정화하고, 이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역사적 건축물과 녹지 공간의 결합”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디자인 개선안에는 ▲벽돌 가마의 안전화와 지붕 구조 복원 ▲벽돌 가마 주변의 울타리 제거 ▲프린스 하이웨이(Princes Highway)에서 공원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해당 공간 전체에 대한 유산 관점의 조사, 분석 ▲커뮤니티의 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잔디밭, 광장 등 공간 조성과 같은 주요 고려사항이 담겼다. 시는 특히 이번 개선안이 해당 부지와 공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시민들의 초기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차 철로, 공장 잔해 등 현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잘 드러내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벽돌을 조경 디자인에 활용하는 등 부지의 맥락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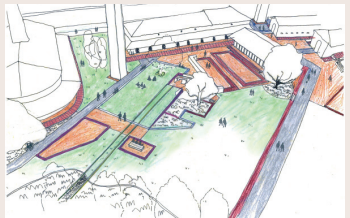
시드니 공원에서 보이는 굴뚝



1980년대 해당 부지의 모습



남아 있는 벽돌 가마



건축유산과 연계한 시드니 공원 개선안

출처: 시드니시 홈페이지,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sydney-park-brick-kilns-and-chimneys-to-be-preserved-and-restored>(검색일: 2022.9.20.)

지역에 필요한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나선 지자체들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2022.7.2.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일자리팀
2022.7.3.

제주도 정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2022.8.16.

경상남도, 청년 지역살이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을 알아가는 것으로 일거리 찾기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군이 각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체험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1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에서는 타 지역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도록 지원하여 지역 이주 희망 계기를 마련한다. 2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월세 등 지역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업을 돕는다.

경기도, '우수청년공간' 선정하고 지원

경기도는 도내 7개 우수청년공간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상담과 문화행사에 필요한 복합공간인 시·군 경기청년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청년공간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 공간으로는 ▲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양평군 청년공간오름 등 네 곳이, 우수 공간으로는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고양시 청취다방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김포시의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수시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양평군의 청년공간오름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 청년들의 요식업 창업 요구를 반영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들 최우수·우수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제주도, 지역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년을 제주로' 진행

제주도가 도 내외 청년들에게 지역의 경계를 넘는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청년들과 도외 청년들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창업', '환경', '원도심' 세 가지 주제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팀 빌딩 ▲프로젝트방향성 설정을 위한 멘토링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 확장을 위한 트렌드 투어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8월부터 2개월 동안 참가자들은 도 내외 청년 10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해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며, 결과는 11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도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상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지역문화 기반 조성하는 문화재생공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
2022.8.12.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2022.8.25.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조치원 1927' 개관

세종시는 조치원을 원도심에 방치된 옛 한림제지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조치원 1927'의 개관식을 지난 8월 12일 개최하였다.

옛 한림제지 공장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경 잠사(蠶絲) 생산을 위한 제사공장으로 세워졌으나 1960년대부터 한림제지 공장으로 40년 동안 가동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을 멈춘 뒤 방치되어 왔다. 세종시는 근현대사 가치를 지닌 옛 한림제지 공장을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원 1927은 150석 규모의 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홀부터 이용자들을 위한 카페와 정원, 가상현실(VR) 체험공간 등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상생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민간운영자로 '정동 1928'을 선정하였다.

향후 조치원 1927은 기존 문화재생공간인 문화정원·청자장 등과 연계한 세종시 원도심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전시 및 공연 등을 통해 지역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이나 예술인 등과 협업하여 지역예술인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 및 예술가 위한 문화놀이터 '청자장 목욕탕' 새 단장 마쳐

세종시는 지난 8월 26일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놀이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청자장 목욕탕'을 열었다. 조치원을 상리에 위치한 청자장 목욕탕은 1985년부터 30년 동안 방문객의 쉼터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탕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이에 총 사업비 65억 6,000만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1년 12월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와 물품구입 등을 준비해 왔다. 1,443m²의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리모델링을 마친 청자장 목욕탕의 1층은 북카페, 2층은 창작공작소, 3층은 창작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4층은 공동휴게공간과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쥬로컬스티치'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공간 운영을 맡겼다.

시는 청자장 목욕탕이 조치원 내 다른 문화재생공간인 조치원 1927, 문화정원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자장 목욕탕 내·외부 전경

출처: 세종시, (2022). 청자장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문 열다, 8월 25일 보도자료.

부산시, 읍면동 마을건강센터 확대 계획

부산시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
2022. 7. 21.

부산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계획과 함께, 15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관리하는 ‘마을건강센터’를 크게 확대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마을건강센터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마을 건강센터 확충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시재생시설 등 마을 내에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측정과 상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주민건강공동체도 운영하는 시설이다. 시는 현재 71개 마을건강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205개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회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방향을 담아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였는데,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목표로 ▲마을 건강수준 향상 ▲지역 내 건강 격차 완화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게 된다.

시는 먼저 ①지속가능한 마을건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건강 자치활동을 활성화한다. 이어 ▲마을 건강센터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함께 표준 운영지침 마련에도 나선다.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바탕으로 마을건강 사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②주민자치 지향 건강공동체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을건강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건강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활성화하며 ▲마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③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건강관리를 실천한다. ▲주민 건강관리군을 구분·등록해 일상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위험군 주민을 찾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며 ▲자조 모임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강사례 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초량6동 마을건강센터

출처: 부산시, (2022). 부산시, 2030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한다! 7월 21일 보도자료.

경상남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위한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지원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2022.7.5.

경상남도는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 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유공간이나 기존 공유공간을 주민 간 교류 증진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류·현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진주, 사천, 거제, 함안 등 선정된 아파트에는 도·시비 4,000만 원 등 모두 2억 원이 투입되어 공유공간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조성공간의 주민참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건축가들과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입주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디자인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공간구성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아파트 공동체 복합문화공간과 작은도서관 등의 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신뢰 회복을 지원하는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아파트 공동체와 공공건축가, 공동체협력지원가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유공간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은 창원 등 7개소이다.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위한 예비후보자 워크숍 현장

출처: 경상남도. (2022). 경남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위해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지원한다. 7월 5일 보도자료.

건축과 도시공간

—

Vol.47

Autumn 2022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채굴된 석회석을 처리하던 쇠석장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새로운 경험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흔적과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 건축은 익숙함과 낯섦의 감정을 동시에 선사하며,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나이가 어린 도시에 시민들을 위한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될 때, 건축가는 무엇보다 '도시의 맥락'을 읽어야 했다. 도시의 다채로운 풍경을 충분히 담아내는 이곳은 도시와, 시민들과 감응하며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

리모델링된 복채장



세계예술의전당



건축이 기억하는 것
- 동해 폐쇄식장 리모델링
082

땅의 율동으로 만든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
098

건축이 기억하는 것 - 동해 폐쇄식장 리모델링 | 과거와 현재의 시간, 변화해 온 환경,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 기존의 구조와 재료 등 어느 한 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거나 지나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건축이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땅의 율동으로 만든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 | 도시와 공원을 향한 두 정면이 드러나도록 대지의 양단부를 오려내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들어올렸다. 건물의 입면으로 정의되는 정면이 아니라 땅의 절개면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빈 공간이 그대로 정면으로서의 인상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 것이다.

건축이 기억하는 것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김효영

김효영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762-6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717,831m ²
건축면적	638.62m ²
연면적	2,061.03m ²
규모	지하 4층, 지상 4층
주차	23대
높이	27.7m
건폐율	2.67%
용적률	3.75%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골합석강판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페인트
설계	김효영건축사사무소, 정희철
설계담당	안성우, 성연학
구조설계	(주)이든구조컨설턴트
시공	건원종합개발주식회사
기계설계	(주)하나기연
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설계기간	2019. 12.~2020. 10.
시공기간	2020. 12.~2021. 11.
준공	2021. 11.
건축주	동해시



폐쇄식장 전경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많은 층위의 고려해야 할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변화해 온 환경,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
기존의 구조와 재료 등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거나 지나치기 어렵다.



기존의 것과 새로 더한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안전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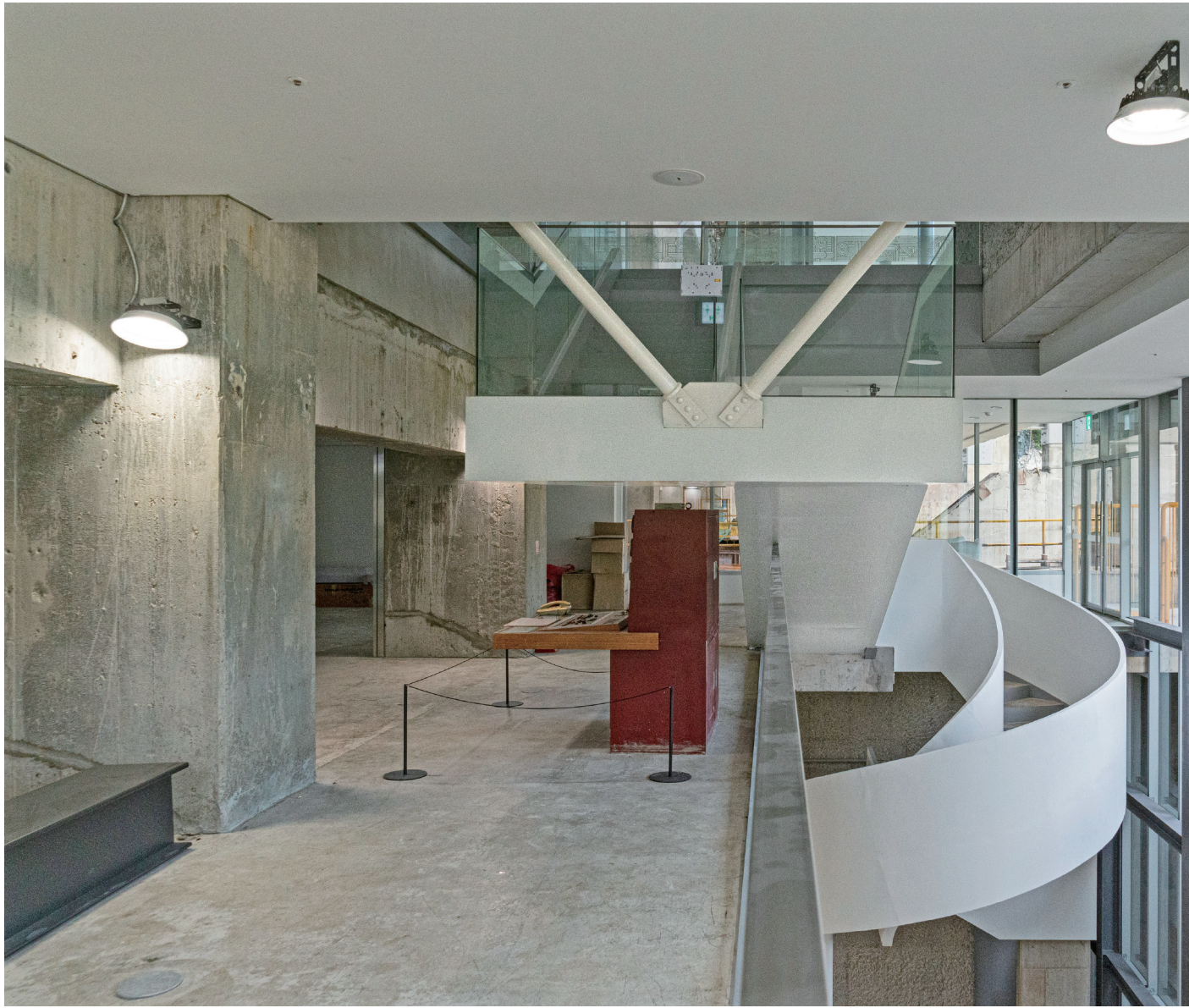
혁신실전



진입로에서 바라본 건축



좌 진입로
우 내부를 관통하는 계단실



지하 2층 홀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



© 최호준



© 최호준



상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 입구
하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공간

폐쇄석장은 아름다운 호수와
라벤더꽃을 보러, 또는 루지나
스카이글라이더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전시품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과거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나게 한다.



©
010
14
1122

폐쇄석장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많은 층위의 고려해야 할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변화해 온 환경,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 기존의 구조와 재료 등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거나 지나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건축이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40년간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를 동해시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면서 석회석을 잘게 부수는 시설이던 폐쇄석장을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이 사업이 2019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공모가 진행되었다.

자화상

도시를 가로지르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처음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녹빛의 호수가 무척 인상적이었고, 쇠석장 건물은 마당에 쌓여 있는 돌덩이 너머로 호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쇠석장은 시멘트를 파내는 구덩이가 깊어지고 그곳에 물이 채워져 호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였을 것이다. 육중한 구조물과 거대한 설비들이 힘차게 움직였을 시절의 자부심을 보여주면서도, 할 일을 마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낯선 공간은 그 쓸쓸함을 전해 주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시점에

© 김호영



상 폐쇄석장 전경
하 기존의 것과 새로 더한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 김호영 건축사무소



리모델링 전 쇠석장



© 건축사
김민준



상 진입로에서 바라본 건축
중·하 쇄석장 측면

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나온 과거를 연민으로 위로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낯선 비판으로 질문하며 변화를 위한 결심과 기대를 표현하는 일이 마치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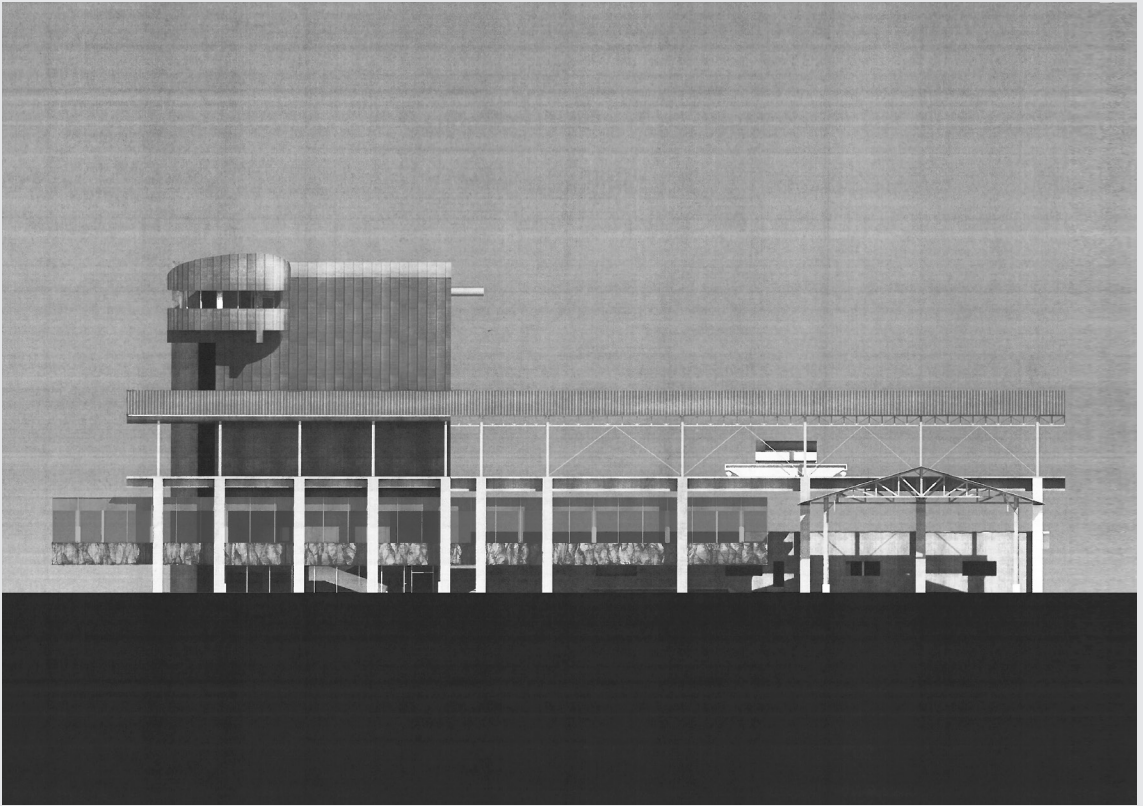
이전의 기억과 새로운 역할

쇄석장은 석회석의 처리 과정이 공간의 구성으로 드러나는데, 석회석을 부수기 위한 설비가 나열되는 수평의 외부공간과 각 단계로 중력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수직의 내부공간의 강한 대비가 외부의 형태를 특징지어 준다. 또한 과도하게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과 벽, 가볍고 세장한 금속트러스의 지붕, 분쇄기를 받치고 있던 여섯 개의 콘크리트 기단, 꼭대기에서 굴뚝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집진설비와 컨베이어벨트 등의 요소들이 산업시설의 낯선 분위기를 만들고 이전의 기억을 전달해 주었다.

기능을 잃어버린 기존의 공간구조와 요소들은 원형대로 유지한 반면에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들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덧붙거나 끼워져 기존의 것과 구별하려 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정체성과 새로운 쓰임을 대비시켜 둘 모두를 훼손 없이 명료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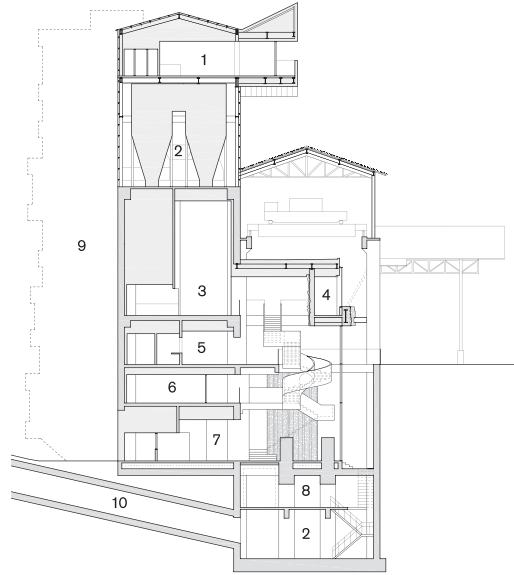
세 개의 덧붙은 덩어리

새로운 기능을 위해 추가된 공간은 세 개의 덩어리로 기존 구성을 따라 수직과 수평, 꼭대기의 둥그런 덩어리가 덧붙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수직의 내부공간 후면 모서리에 붙듯이 연결되는데, 엘리베이터의 수직선과 함께 모두 다른 높이의 층을 연결하는 다른 길이의 계단이 마치 깃발과 같이 덧대어져 수직성을 강조한다. 22개의 기둥에 둘러싸인 외부공간 안쪽으로 증축된 수평의 공간은 떠 있듯이 간신히 지지하며 기둥 사이를 길게 관통하여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모험을 감행한다. 이곳은 2층의 홀과 함께 전시의 기능을 하지만 기둥 위의 크레인이 다니던 방향을 따라 기존의 시설을 살펴보면 관람하는 곳이기도 하다. 제일 높은 곳의 전망대는 골강판으로 둘러싸인 박공 형태의 모서리에 부정형의 평면으로 매달리듯 돌출되어 안쪽으로는 남겨진 집진설비를 바라보고 밖으로는 단지의 경관을 조망하는데, 외부의 모습에 있어 시설의 새로운 사용과 변화를 알리는 사인(sign)과도 같은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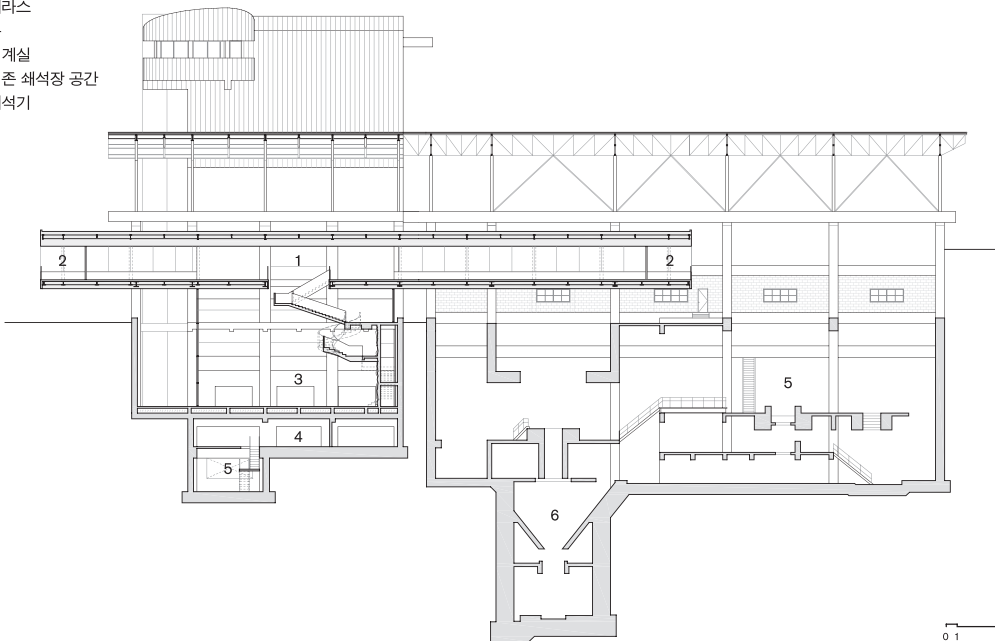
입면도

- 1 전망카페
- 2 기존 채석장 공간
- 3 전시공간 홀
- 4 전시공간
- 5 홀
- 6 사무실
- 7 홀
- 8 기계실
- 9 증축 코어
- 10 컨베이어벨트



0 1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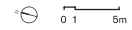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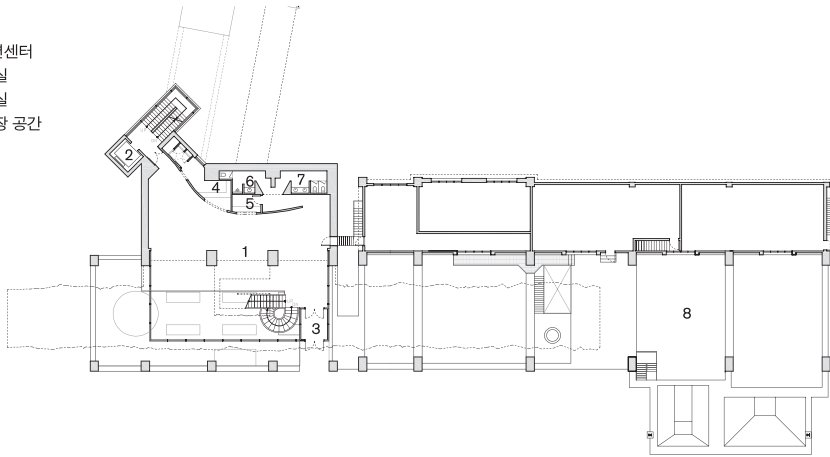
- 1 전시공간
- 2 테라스
- 3 홀
- 4 기계실
- 5 기존 채석장 공간
- 6 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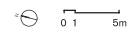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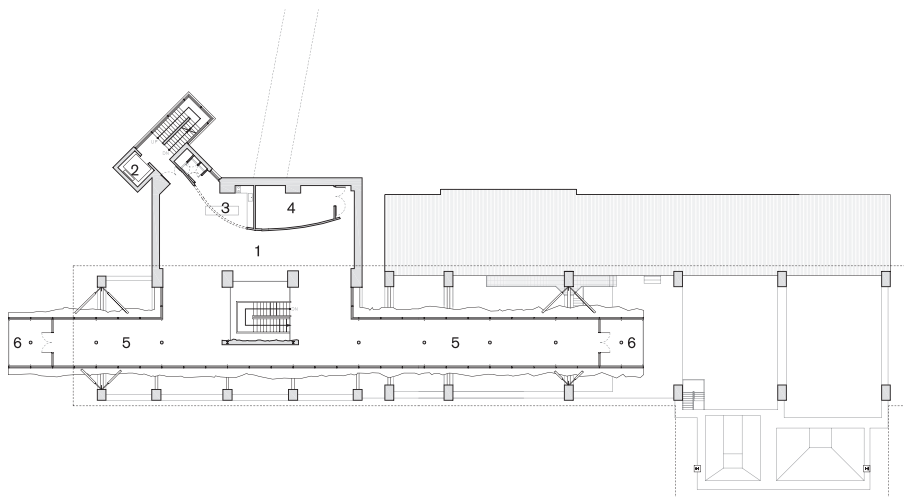
0 1 5m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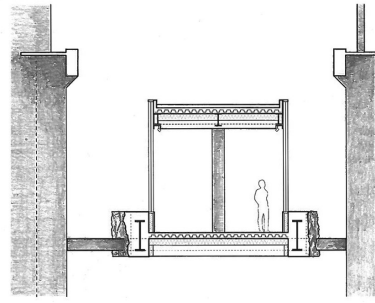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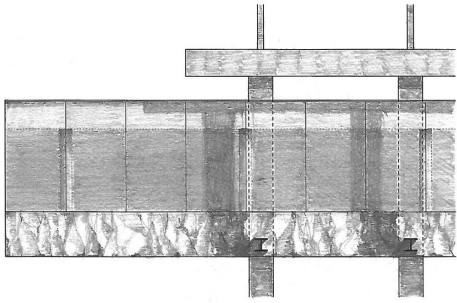
- 1 홀
- 2 엘리베이터
- 3 입구
- 4 상점
- 5 인포메이션센터
- 6 남자 화장실
- 7 여자 화장실
- 8 기존 색색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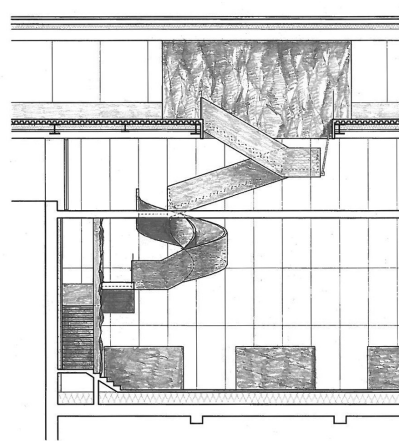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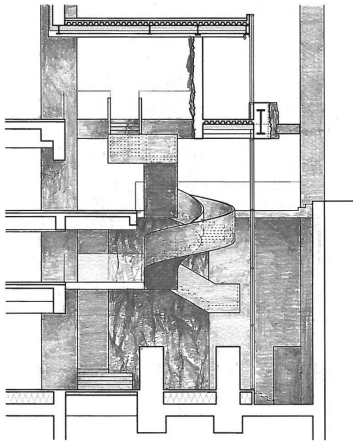
- 1 홀
- 2 엘리베이터
- 3 조리실
- 4 창고
- 5 전시공간
- 6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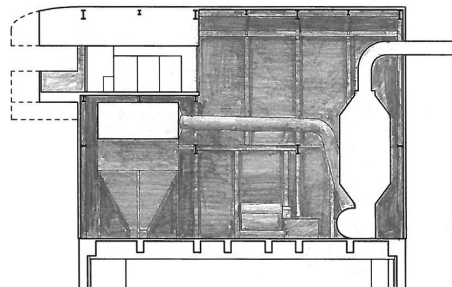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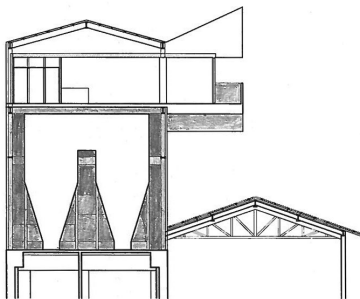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2층 전시공간



중앙홀 계단



4층 전망카페

거칠고 매끈한 것 사이를 탐험하는 계단

진입하는 방향의 높이가 전면마당보다 낮은 까닭에 내부의 경험은 지하에서 시작한다. 문을 열자마자 마치 폐허의 유적처럼 남겨진 여섯 개의 콘크리트 기단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크기는 위에 올려져 있던 돌을 부수는 설비의 위용을 짐작하게 한다. 내부공간은 닫힌 공간을 열기 위해 기존의 콘크리트구조를 거칠게 깨어낸 자국과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매끈한 벽이 층마다 반복되며 대비된다.

지하 2층의 홀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은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형태를 공중에 그려낸다. 계단을 따라 공간을 굽이굽이 오르고 내려다보는 다양한 시선은 콘크리트의 ‘거친 옛것’과 ‘매끈한 새것’ 사이를 탐험하듯 가로지르며, 시멘트를 만들던 공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

기억의 건축, 건축의 기억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집된 물품들 중에는 버려진 안전모와 작업복, 뜯금없이 아름답게 색칠된 설비 도면과 함께 수많은 안전제일 표지들이 있었다. 작업을 위해 드나들던 입구 위에, 또는 철거되거나 남겨진 벽의 곳곳에 붙어 있었을 이 표지들은 이제 이곳에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되어 과거의 절실함과 고단함을 전해 준다.

무릉3지구는 2021년 11월 ‘무릉별유천지’라는 이름의 관광단지로 개장하였고, 폐쇄석장은 아름다운 호수와 라벤더꽃을 보러, 또는 루지나 스카이글라이더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전시품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과거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나게 한다. 건축의 기억을 유지하여 마련된 이 만남이 서로의 시대에 대한 돌아봄을 통해 지금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존중과 시간을 넘는 유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鄭時敏



상 지하 2층 홀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
중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 입구
하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공간

땅의 움동으로 만든 장소

세종예술의전당

오호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애피 사장

개요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로 2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대지면적	35,780.00m ²
건축면적	8,065.57m ²
연면적	16,186.35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35.7m
건폐율	22.54%
용적률	28.29%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트러스지붕
구조설계	씨엘에스구조
설계	오호근
설계담당	박세환, 박종인, 김지완, 문성우, 임수경, 이정화
시공	(주)HJ중공업
기계·전기설계	기계-한일엠이씨(HIMEC) / 전기-(주)정우디씨
음향설계	ad&c
설계기간	2017. 7. 25.~2018. 12. 27.
시공기간	2019. 1. 30.~2021. 5. 10.
공사비	약 740억 원
건축주	세종특별자치시



장소와 도시의 만남

세종예술의전당은 계획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도시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였다.
사실 세종시는 도시를 형성하는 도상학적 개념이
특징적으로 뚜렷하게 제안된 편이기도 하다.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부



상 투명한 정면파사드 - 눈높이 주경
하 투명한 정면파사드 - 눈높이 야경



© 2014
R&H



© 2014
R&H

상 도시를 바라보는 장면 - 야경
하 옥외예술원터



상 공연장 홀 무대방향
하 공연장 홀 객석방향

도시와 공원을 향한 두 정면이 드러나도록
대지의 양단부를 오려내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게 들어올렸다. 건물의 입면으로 정의되는
정면이 아니라 땅의 절개 면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빈 공간이 그대로 정면으로서의
인상을 만들어내기를 바란 것이다.



© 2014
대지

풍경을 담은 대지 - 공원방향 조감

환형(環形)의 도시

오랜 시간 도시가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맥락은 장소와 건물을 계획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더군다나 공연장의 경우 도시에 제공되는 주요한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떤 인상으로 드러나게 하는가는 계획의 출발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종예술의전당을 계획하기 위해 대지에 처음 가본 때는 2012년, 대략 10년 전이다. 이때만 해도 세종시는 허허벌판에 가까웠다. 역사가 쌓아놓은 실재하는 도시의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계획되어 만들어지는 도시는 그 계획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설계된 도상학적 개념으로만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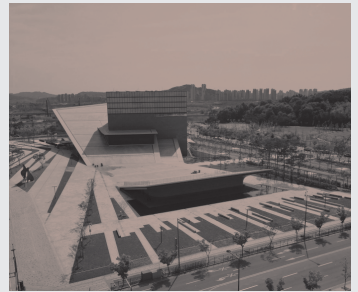
물론 이 프로젝트 바로 이전에 사이트 가까운 곳에서 행정도시로서 가장 주요한 시설인 정부종합청사(3-1 구역)를 설계한 경험 이 있어서 아무 맥락도 실재하지 않는 도시에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생소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때는 이미 정부종합청사의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맥락적인 개념과 기준은 뚜렷하게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또한 세종예술의전당 이후에 바로 세종시의 주요 상업블록 안에 대규모 복합용도의 건물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도시계획적 기준이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형태와 맥락을 규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건축가로서 제시해야 하는 도시적 언어의 틈을 찾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세종예술의전당은 계획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도시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였다. 사실 세종시는 도시를 형성하는 도상학적 개념이 특징적으로 뚜렷하게 제안된 편이기도 하다.

세종시의 도시 형태는 도시개념의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환상형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길게 뻗은 그리드의 가로형 도시블록을 원형으로 구부려 연결하고 그 가운데를 비워 놓는 것이다. 비워져 있게 되는 도시 중심부인 기존의 장남평야 부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장소이자 시민 친화적 자연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사격자형의 도시골격은 자연지형이나 주변 도시조직과 만날 때 경우에 따라서 팽창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010
12월



상 장소와 도시의 만남
하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 2014
F&B
100



상 투명한 정면파사드
하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두 방향의 서로 다른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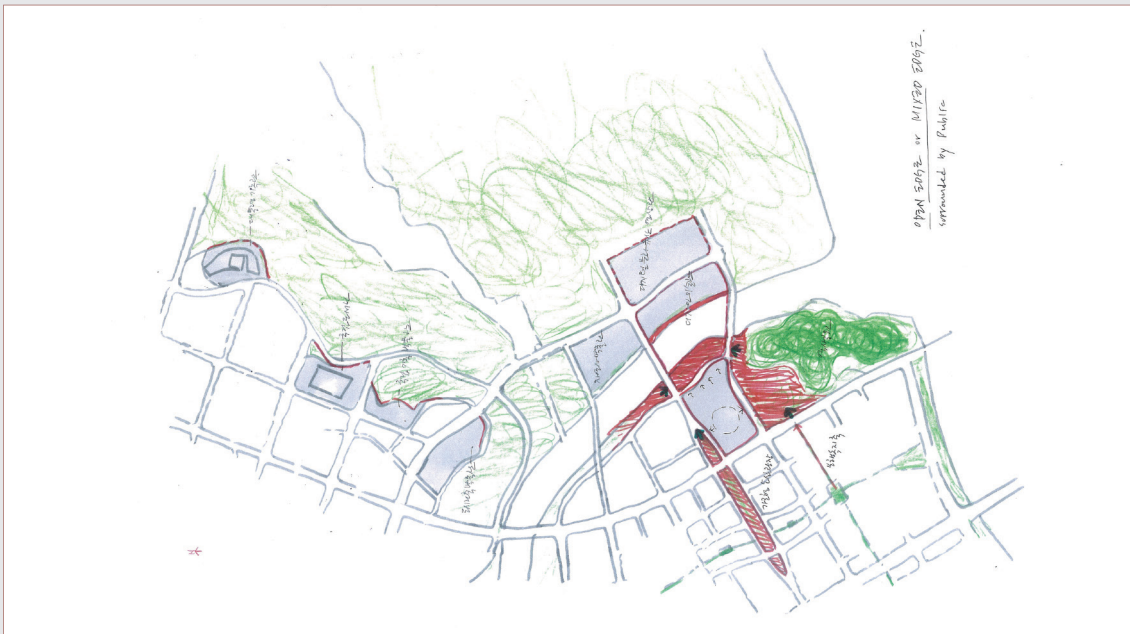
환형의 도시 구조에서는 비워진 중심을 향해 가로질러 연결하는 방사형 축이 중요한 도시적 기능이 되는데, 환형의 그리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 잡은 축은 도시 외곽과 중심부를 연결하는 공공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러한 축의 하나로서 도시 상징광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비워진 도시 중심을 향한 그 끝에 세종예술의전당이 긴 방향으로 접하여 자리 잡는다. 그러다 보니 장방형의 대지는 길이 방향으로 그 양쪽 끝에서 마주하는 도시의 맥락이 서로 완전히 다르며, 동시에 각각에서의 도시적 접근이 위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정면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도시 방향에서는 시민의 접근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정면을, 반대쪽에서는 도시의 비워진 중심을 바라보는 풍경을 가진 정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잘려서 들어올려진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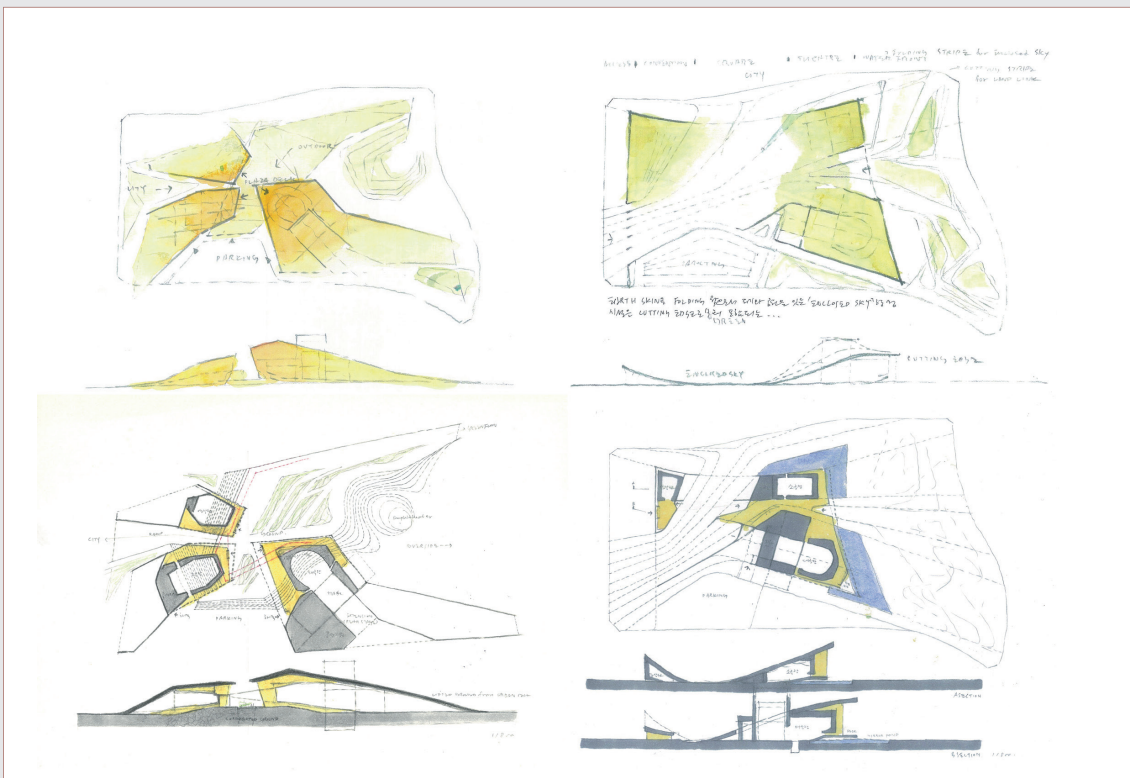
도시와 공원을 향한 두 정면이 드러나도록 대지의 양단부를 오려내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게 들어올렸다. 건물의 입면으로 정의되는 정면이 아니라 땅의 절개 면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빈 공간이 그대로 정면으로서의 인상을 만들어내기를 바란 것이다. 이로써 대지의 한 쪽은 도시 중심의 자연을 향해 들어올려져 풍경을 만들고, 반대편은 도시 일상을 향해 들어올려져 장소를 만들게 된다. 도시를 둘러싼 큰 환형의 일부로서 서로 다른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개의 정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잘려서 들어올려진 땅, 그 아래의 비어 있는 공간은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목적지로서의 정면이자 속도가 완화된 경험이 전환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이 장소는 들어올려 열리게 된 방향으로 도시와 공원의 도시적 풍경이 관입되어 들어오게 되고, 땅과 맞닿아 닫힌 방향으로 들어올려진 켜와 분리되지 않는 대지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었다. 이것이 다른 건축적 요소를 더하지 않고 개념적 언어를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옥상면, 천장면, 홀의 외벽면은 하나의 조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였고, 이 부분의 재료와 구조 및 디테일을 풀어내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도가 되었다. 특히 옥상면과 천장면을 구분 짓는 접점은 자칫 그 자체로 무거운 테두리의 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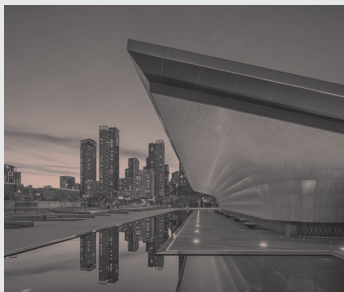
두 방향의 서로 다른 정면



잘려서 들어올려진 땅 - 배치 개념스케치



© 110
110



상 투명한 정면파사드
하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디테일이기 때문에, 면이 존재하지 않는 ‘zero dimension’을 개념적으로 전제해 두고 디테일을 풀어나갔다. 건축가가 공사의 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공공건물의 성격 때문에 어렵게 풀어진 건물 곳곳의 디테일들이 구현되지 못하고 시공된 곳이 많아 무척 아쉬운데, 옥상 면과 천장 면의 접점이 바로 홀의 외벽 면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큰 맥락을 전달하는 정도는 드러난다고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첫 번째 정면, 비워진 도시의 중심을 만나는 방법

개념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또 하나의 개념적 대상은 투명한 외벽 면이다. 들어올려 열려 있어야 하는 삼면은 원칙적으로 파사드로 형성되는 입면 스스로의 어휘가 존재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와 단열성능을 충족시키며 유리로만 이루어진 벽면을 사용할 수 없어서, 커튼월의 구조체와 옥상하중이 전달되는 건물 외곽의 구조체를 일체화한 후 유리를 지탱하는 프레임의 간격과 단면 등을 조정해 가며 파사드의 존재감을 중성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파사드가 마침 북쪽을 향하고 있어 이른 시간의 동향 일사(日射)나 늦은 시간의 서향 일사가 옆으로 들어올 때 외에는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투명한 성격의 공간이 드러나기보다는 어둡게 그림자가 차 있는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후 늦게 사람들이 찾는 장소인 공연장의 성격상 홀의 공간을 채우는 조명이 외벽 면의 존재감을 지우고 홀의 덩어리를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된다. 사실 홀의 외벽 면은 공연장의 전형으로서 목재의 물성으로 계획되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성형이 쉬운 석고계열의 마감재료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표피가 조명이 만들어내는 색의 질감에 더 편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색 없이 재료의 하얀색을 그대로 두었다.

두 번째 정면, 시민의 시간과 도시의 시선을 만나는 방법

도시 쪽을 향하는 정면의 공간은 외부공간이다. 계획 당시에는 실내의 프로그램이 주어졌는데, 예산 등의 이유로 실내 프로그램의 면적이 제외되면서 지붕하부의 옥외공간만 남게 된 것이다. 공연장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의 서비스여야 하는데, 보통 공연을

관람하는 제한된 시민들만이 한정된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도시를 가장 가깝게 향한 이 정면의 공간이 이곳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편하게 열려 일상에서 쉽게 이용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고, 이 때문에 실내의 프로그램 없이 적당한 옥외공간의 쉼터로서 지붕만 남아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조형적이 측면에서는 실내를 구분짓는 외벽 면이 필요 없게 되어 반대편의 공연장 홀보다 개념적인 어휘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풍경을 담는 대지

이로써 땅에 붙어 남아 있는 중심은 건물의 뒷면이 등을 맞대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땅의 연속면이 된다. 자연스럽게 대지의 중심은 물결의 가장 낮은 부분이 되어 마치 풍경을 담는 오목한 그릇처럼 하늘로 이어지는 거대한 아치를 이루며, 이 자체로 세종시를 기억하는 도시의 상징이 된다. 이렇게 도시 상징광장에 면하는 대지의 긴 쪽 방향에서 장소의 풍경은 들어올려진 대지의 단면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호로 둘러싸이며 환형의 도시축을 비워진 공간으로 연결한다. 물론 장소가 단지 상징으로서만 시민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도심광장과 나성리 역사공원을 이어주는 장소가 된다.

물결치는 여정

환형의 도시축 방향으로 이어지는 이 힘을 따라 땅에는 파형의 주름이 새겨지며, 이 주름은 자연스럽게 길로 이어져 인접한 공원과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발걸음의 여정을 안내한다. 상징광장의 끝에서 넓게 연결되는 대지에서 별다른 시설이나 구조물 없이도 공연장의 입구나 펼쳐진 아크의 중심공간으로 많은 시민의 여정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비워 있는 땅이 물결치며 만들어내는 골과 마루에서, 녹지와 보행이 교차하며 목적지를 향해 길게 뻗은 길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시야로 적절하게 멈춰서는 녹지가 된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야외공연장의 성격을 가진 예술쉼터의 건축적 완성도이다. 단면적으로는 하늘을 품는 거대한 원의 호가 땅과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것인데, 이 호가 공연장 쪽 방향으로 공원으로 길게 뻗는 대지가 되고, 도시 방향으로 살짝 들어올려진

© 2022
F&F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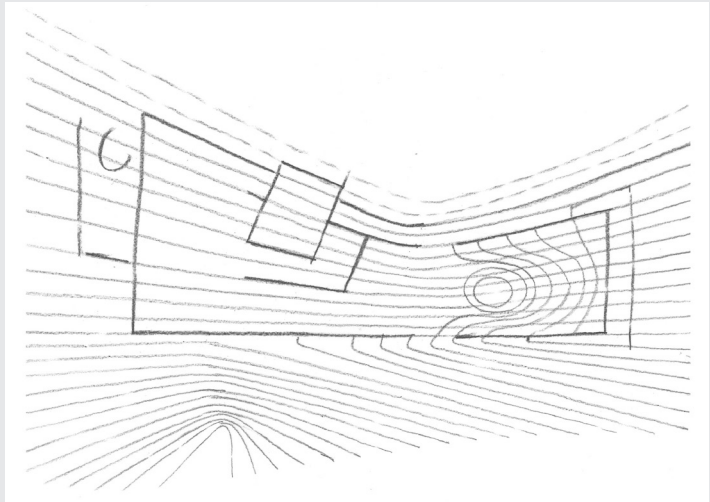
상 풍경을 담는 대지 - 공원방향 조감
하 옥외예술쉼터



◎ 배치개념 스케치



상 공연장 홀 무대방향
하 공연장 홀 객석방향



◎ 배치개념 스케치

배치개념 스케치

작은 옥외 객석이 되는 것이다. 원래 공연장 쪽으로 길게 뻗은 대지는 사람이 접근하여 도심 중앙의 비워진 땅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여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물의 특성상 펜스로 가로막혀 접근이 불가한 장소가 되었다.

반대편의 옥외 객석은 사실 살짝 들어올려진 땅이 눌러 붙어 있는 조형적인 형태를 목적으로 비정형적 도구를 사용하여 지오메트리의 작은 단위까지 공들여 설계하였는데, 시공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임의적인 디테일로 구현되어 버렸다.

물결치는 감각

여정의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공연장의 홀은 중심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점이며, 그 자체로 다시 모든 감각이 만들어지는 원천(origin)처럼 경험되기를 바랐다. 중심에서 물결치며 퍼져나가는 소리와 빛은 마치 수많은 나팔이 울려 퍼지듯 무대를 감싸면서 조명과 음향이 만들어내는 모든 감각이 다시 공연자에게 전달되는 상상을 한 것이다.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소개
114

포럼 및 세미나
118

연구원 단신
123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염철호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허한걸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축물 통계 개발 연구	조영진
	치매친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	고영호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김영현
수시 과제	스마트건축 인증 세부평가기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남성우

기본과제

❶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한가?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전국의 주거빈곤 아동도 9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등 아동이 누려야 할 필수 권리로서 주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공간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 주거공간에서 아동을 위한 배려는 그다지 깊게 다루지 못했다. 아동의 권리나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친화도시에 비해 아동친화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을 고려한 주택정책이나 주거기준 또한 아동친화보다는 육아친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친화 주거공간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의 기획부터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택 내부뿐만 아니라 주택의 외부공간, 인접한 도시공간까지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비차별, 발달, 참여, 안전, 창의, 소통 등을 고려한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인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업모델, 그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팀과 협동연

구로 진행하며, 도출한 사업모델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역개발사업(생활공간 조성 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아동친화 주거공간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아동이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의 개념과 사업모델이 확산되고, 나아가 빈곤여부, 소득수준,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의 거주환경과 발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염철호

②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및 사업 시행을 위해 건축물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와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 도입이 촉발되고 있다. 건축물 정보는 기획부터 소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쳐 구축되는 국민의 주거, 경제활동,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로, 이를 기반한 빅데이터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 신산업 개척, 건축산업의 업역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건축물과 공간단위 정보가 통합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민간·공공 간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 방안,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표준화 방안의 부재는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활성화를 위협한다. 특히, 구축된 적 없는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오류발생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행정정보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시범구

축함으로써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방법을 실증하고, 구축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건축·공간 빅데이터 구축 방법을 실증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며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의 활용방향을 도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허한결

③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축물 통계 개발 연구

건축물 관련 통계는 정책 기초 자료, 사회·경제지표, 관련 산업과 연구 등 여러 부문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건축물 관련 통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착공 통계와 같은 국가승인 통계(보고통계)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시스템의 맞춤형 건축 통계, 건축물 관련 원시데이터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건축물 인허가, 착공, 현황 등의 통계로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 국가승인 통계(건축물 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등은 전국 및 광역 단위 건축물의 동수/연면적 중심의 물량 제시로 연차별/분기별 건축물의 대략적인 양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나, 건축 시장의 세밀한 변화를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와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유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기존 데이터에 이기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존에는 알 수 없던 사실(데이터)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통계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 관련 통계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건축물 국가승인 통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행정정보를 토대로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건축물 관련 통계수요에 대응하고, 건축물 통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건축물 관련 정책과 산업에서 데이터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보다 편리하게 이루고자 한다.

조영진

4 치매친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

고영호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인구는 1,000만 명, 치매 어르신은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60년에는 치매 어르신이 3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통계청, 2019; 중앙치매센터, 2021). 2019년 전국의 추정 치매 어르신 79만 4,290명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국가의 치매관리비용은 약 16.5조에 이르며, 2040년 약 63.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중앙치매센터, 2021).

관련하여 국가는 국정과제45 ‘100세 시대 일 자리 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통해 치매돌봄 체계 강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 「치매관리법」(2012년 제정)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 광역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를 두어 치매관리 지침의 개발, 시행계획 지원, 치매인식개선 교육 홍보,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돌봄가족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서비스

대비 시설 입소를 통한 요양·돌봄의 실효성으로 인해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입소·입원이 증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 활동과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과 사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고, 국민과 치매 어르신의 돌봄가족 대상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특성과 FGI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입소를 가능한 방어하며,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부담과 국가·지자체의 관리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5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 성격의 정책이 요구되면서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왔다. 건축 분야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며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 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건축정책을 추진한 지난 15년 동안 건축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정책 세부 분야별로 신규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 경관관리, 녹색건축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건축문화 진흥 측면에서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건축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가정책을 다루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정책

대상과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건축 관련 법령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도 불분명하여 정책 추진 시 혼선을 빚기도 하여 건축 관련 정책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구현 외에도 건축이 갖추어야 할 건축물의 생산부터 유지관리 전생애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가치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축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축기본법」에 대해 전반적 검토하여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축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영현

Global Institute Report, 2017), 투자 규모도 2017년 이후 정체되고 있어 건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전환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공간이자 융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형성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건축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스마트건축 인증'을 제안하고 세부 평가기준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 조사를 통해 건축물과 연계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 기준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 체계 등을 결론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성우

수시과제

① 스마트건축 인증 세부평가기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활의 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건축·건설 분야는 디지털화 지수가 6%로 정보통신기술(95%), 제조(28%), 농림수산(10%)과 비교하여 디지털 전환 속도가 뒤처지고 있으며(Mckinsey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마을재생의 다양한 시도 :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 택티컬 어버니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7월 1일(금) 군산 카페소렐에서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마을재생의 다양한 시도 :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주제 아래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제안 및 실천하고 있는 프랑스 건축도시그룹 까바논 벡띠깁(Cabanon Vertical)의 사례와 사람 중심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택티컬 어버니즘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시공간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디자이너 Emilie Jaguin과 매니저 Chloé Lechalupé가 까바논 벡띠깁의 조직구성과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까바논 벡띠깁이 수행한 프로젝트 'Aix-en-provence', 'Village d'Alix(Lyon)', 'Carriet(Bordeaux)'를 차례로 소개하며 주민참여 연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론과 개발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발제는 박지호 체인지워크 대표의 '체인지워크의 택티컬 어버니즘'을 주제로, '청량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앙대학교 교통정온화 실험 프로젝트', '회기동 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윤주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Olivier Bedu 까바논 벡띠깁 예술감독, 추민아 까바논 벡띠깁 디자이너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트랜지셔널 어버니즘과 택티컬 어버니즘의 참여과정을 통해 본 장·단점과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2 도시와공간포럼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e대한경제가 공동 주최한 '2022 도시와공간포럼'이 7월 13일(수)~14일(목) 양일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별 석학들과 함께 팬데믹 이후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공간혁명을 비롯하여 도시공간, 산업, 금융, 헬스, ICT를 접목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4일 치러진 본 세션에서는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정책의 과감한 전환, 서울비전 2030'을, 두 번째 기조강연으로 하라켄야 일본 디자인센터 대표의 '유동의 시대-나뉘어 연결되고 떨어져서 모이는(遊動の時代-分かれてつながる、離れてあつまる)'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특별대담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과 하라켄야 대표가 함께 '미래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간과 욕망, 부동산 등 도시와 공간에 대한 여러 이슈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팬데믹 이후 새롭게 변화한 도시와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는 강연이 마련되었으며, 이 중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의 재편, 초광역화 미래진단' 세션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재생을 위한 통합 공간관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5일(금) 제주문화관에서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건축자산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오영훈 도지사의 환영사와 이영범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정책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조사의 활용과 등록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는 양건 가우건축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창현 제주도 건축지적과 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은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김용미 전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가 토론에 나섰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 통계의 의의와 활용’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7월 14일(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승인번호 462001호)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활용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승인 통계의 작성방법과 활용방향, 향후계획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및 활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한근식 한신대학교 교수가 ‘국가승인 통계의 의의와 가치’를 주제로 통계작성기관의 역할과 업무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분야 국가승인 통계의 종류와 산업적·정책적 효과’를 통해 건설분야 국가승인 통계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전하였다.

이후 박재범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위원, 조성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홍성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김상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의견을 정리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한국형 CCRC 미리보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15일(금)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CCRC 미리보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복지와 건축도시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및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K-CCRC)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박진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장전문가들의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례발표로, 김종빈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이사가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고, 두 번째 사례발표로, 김정석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실장이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모델’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광호 공무원연금공단 실장은 ‘은퇴자공동체마을 모델’을 설명하였다.

사례발표에 이어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기도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대표, 한은화 중앙일보 전문기자,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해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의 필요성과 분야 간 협업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2022 공공건축 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7월 21일(목) 서울 인사동 코트 별관 2층에서 2022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운영자와 이용자, 건축가, 행정가 등 여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지 모색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대표의 기조발제 '우리들을 위한 공공건축'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조성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 건축 대표가 '다음세대를 위한, 다음세대에 의한 공공건축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도서관'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개발팀장이 참여해 건축기획,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등 공공건축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였다.

2022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AURI 스페셜세션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도시공원과 공공공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31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22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AURI 스페셜세션을 개최하였다. 스페셜세션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도시공원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글로벌 조경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도시공원 및 공공공간의 역할과 기능,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사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미국 워싱턴 대학교 Jeff Hou 교수가 ‘A Post-Pandemic Urban (Park) Agenda’를 발표하였고, 두 번째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박소현 교수는 ‘Disruptive Thinking for Future of Urban Parks’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How to use green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ities in climate crisis era’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서 녹색건축의 역할을 전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Bruno Marques를 좌장으로 하여 James Hayter IFLA 회장, Catherine Nagel 미국 City Parks Alliance 이사, 고정희 독일 Thirdspace Berlin 대표, 정옥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 세계조경가대회(IFLA World Congress)는 매년 국가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조경가 회의이다.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일(금) 강원도 홍천군 한마당 강당에서 열린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도시재창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의 도시재창조’를 슬로건 삼아 8월 31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만족도가 높은 집수리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사업 참여자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업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총 34개의 사업지가 접수하였으며 ▲사업운영 체계성 ▲사업성과 ▲지역기여도를 합산한 결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 1팀,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3팀을 선정하였다.

행사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한철민 사무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상을 수상한 경북 영주시와 우수상을 수상한 강원 춘천시·경남 창원시의 집수리사업 부문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동구와 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경산시의 집수리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발표가 차례로 이뤄졌으며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맺음말로 마무리되었다.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이 지난 9월 2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7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하며,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했다.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물리적 공간 조성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경관분야 대표 행사로 올해 14년째를 맞이하였다. 총 9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8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작 23점을 선정하였다.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은 인근 도심 관광 자원과 연계해 유인력 높은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여 국민의 관심과 호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백운호수 주변에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적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한 모델 사례로 호평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장상(경관행정 부문)은 평택시와 고양시에게 돌아갔다. 평택시는 '품격 있는 도시를 향하여'로 경관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관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고양시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고양시 경관계획'으로 시민생활권을 세분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공간연구원-주택관리공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4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공간의 질에 기초한 정책 개발·지원 ▲발전적 주거문화의 형성과 확산 기반 구축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의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서비스·커뮤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으며,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한지 3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입주민 상당수가 고령, 장애인, 1인가구로 특히 독거노인의 거주비율이 높다”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주거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입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9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노후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 사전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존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자 한다.

이에 ▲산단 내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력 ▲노후산단 공간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 정책 기획·발굴·추진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 자료 공유를 통해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산업단지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 등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 제3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제3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건축·도시 전공 학생들 중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연구원 견학과 연구원 소개, 현직자 강의로 구성되었다.

연구원 견학 및 소개 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 사업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채용 시기, 방법, 절차, 평가 항목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발간물을 제공하였다. 현직자 강의에는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건축의 이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적인 대안으로서의 건축을 설명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연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2020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택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개선 방안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2019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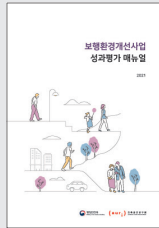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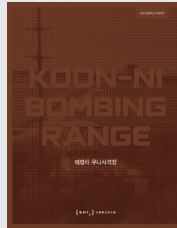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1 한옥 통계 백서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한수경, 김영지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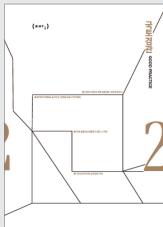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 매항리 쿠니사격장
이규철, 이세진, 이연경,
김용한, 김웅기, 김기웅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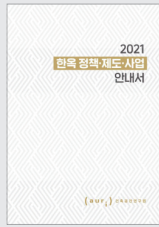
혁신활동을 통해 본
건축서비스산업
김상호, 유제연, 김은희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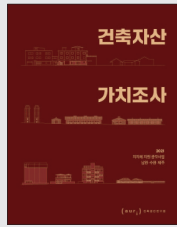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
이은석, 박성남, 남성우,
허한결, 송유미, 지석환
비매품



국도경관 GOOD PRACTICE 2
심경미, 김민경, 이경재,
송윤정, 방재성, 안재락, 주신하,
이석현, 윤동진
비매품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건축자산 가치조사
- 2021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남원·수원·제주)
건축문화자산센터,
서울소셜스탠다드, 바래(BARE),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비매품



좋은 공공건축 04
청소년의 꿈을 담은 사랑방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고영호, 한승연, 최가윤, 허재석
비매품



공공건축가이드 0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매뉴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1
이여경, 오민정
비매품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비매품



202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20
이경재, 방재성
비매품

보내는 사람

성함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1.1 ~ 2022.12.31

세종우체국송인
제40061호

받는 사람

(a u r i)

건축공간연구원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B 8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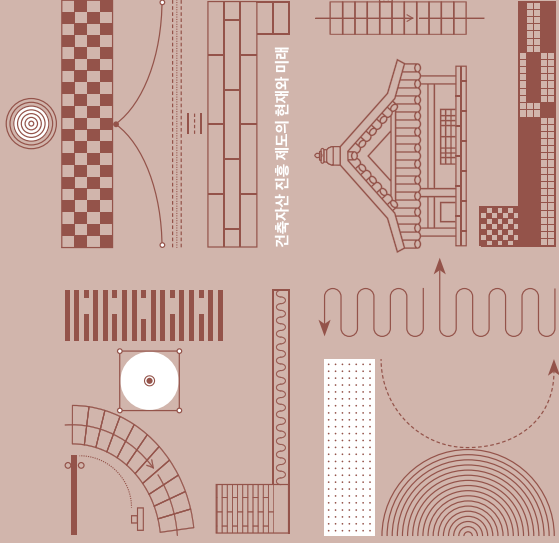
0

1

1

6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
